

경남 의령지역의 문집 간행양상*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at Uiryong(宜寧) Area, Gyeongnam Province Korea

송 정 숙(Jung-Sook Song)**

김 시 내(Sinae Kim)***

< 목 차 >

| | |
|-----------------------|----------------|
| I. 머리말 | 1. 문집의 판종 분석 |
| II. 경남 의령의 인문지리적 환경 | 2. 문집의 유형 분석 |
| 1. 의령의 역사와 자연지리 | 3. 문집의 저자사항 분석 |
| 2. 의령의 인물 | 4. 문집의 발행사항 분석 |
| 3. 의령의 서원 | IV. 맺음말 |
| III. 의령지역의 문집 간행경향 분석 | |

초 록

이 연구는 경상남도 의령지역에서 간행된 109종의 문집을 대상으로 문집 간행의 구체적인 양상과 출판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문집의 판종, 유형, 저자사항, 간행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남 의령지역 간행 문집 109종의 판종, 유형, 저자사항, 간행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판종은 목활자본(52종, 47.7%), 석판본(25종, 22.9%), 신연활자본(18종, 16.5%), 목판본(14종, 12.8%)의 순이다.
- 2) 유형은 문집(53종, 48.6%), 유집(47종, 43.1%), 실기(9종, 8.3%)의 순이다.
- 3)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는 1318년부터 1902년까지 584년의 간극이 있다. 1318년생은 <경은실기>의 저자인 전조생이고, 1902년생은 <희동유고>의 저자인 전용기(1902-1978)이다. 전체 저자 104명 가운데 19세기 전기 출생자가 16명(15.4%), 19세기 후기 출생자가 54명(51.9%)로서 19세기에는 전체의 67.3%에 해당하는 70명이 출생하였다.
- 4) 109종 문집 저자의 성관은 모두 29개로서 담양전씨(15종) > 고성이씨(12종) > 진양강씨-탐관안씨(각9종)의 순이다.
- 5) 의령에서 문집의 간행년도를 보면, 16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70년간 간행되었고, 1820년대까지는 문집이 목판으로만 간행되었고, 1850년대에 목활자본 문집이 처음 나타나며, 1930년대에 석판본, 신연활자본 문집이 나타난다.
- 6) 저자 사후 문집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저자가 별세하는 당해년부터 사후 545년까지 간행되었고, 저자 사후 50년 이내에 63%인 69종이 간행되었다.
- 7) 문집의 간행소는 판종에 구분없이 조상의 제향공간인 누정과 재실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이는 문집간행이 선조의 학문과 행적을 선양하고자 하는 혈연공동체의 사업이었음을 말해준다.

키워드: 문집 간행, 경상남도 의령군, 목판본, 목활자본, 광재우, 이로, 안희제

ABSTRACT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som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109 volumes of collections of works at Uiryong area i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author analyzed type of printing, type of collections of works, their birth year and the family name of the author, the place and the year, and the publisher of the publication of these different 109 kinds of the collections of wor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ollections of works demonstrate their forefathers' academic competencies.

The types of printings were divided into 4 types, wood block printing, wooden movable-type printing, new lead-type printing, lithography printing. Of the collections of works 48% were wooden movable-type printing. The types of collections of works were divided into 3 types, Munjip(文集), Yujip(遺集), and Silgi(實記). Of the collections of works 49% were Munjip. The authors were local intellectuals. Of these authors 67% of authors were born in the 19th century. Twenty nine lineage groups published collections of works at Uiryong area. 90% of the publications were published in the 20th century. In terms of place, 81% of the collections of works were published in the worshipping halls for their ancestors. 63% of the collections of works were published within 50 years after the author had died.

Keywords: Wood block printing, Wooden movable-type printing, New lead-type printing, Lithography printing, Printing and publishing of collections of works, Uiryong area, Gyeongsangnam-do Province.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5938).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3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대전 본원에서 개최된 <2018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cinekim@pusan.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9년 02월 21일 •최초심사: 2019년 02월 28일 •게재확정: 2019년 12월 16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305-337,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12.305]

I. 머리말

조선시대에 편찬·간행된 문헌에 대한 연구가 영남, 호남 등 광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시, 군 등의 기초단위 지역들이 지닌 개별성과 독자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필자는 기초단위 지역들이 지닌 개별성과 독자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을 중심으로 기초단위 지역별로 연구하고 있다. 이는 시간 중심의 역사연구에서 잃어버린 ‘장소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문헌의 인쇄 수단은 금속활자, 목판, 목활자를 들 수 있으며, 신(식)연활자와 석판 인쇄는 구한말에 유입되어 일제강점기에 대중화 되었다.

‘경남지역 목활자본 문집 간행양상’ 연구의 일환으로 의령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을 조사한 결과, 의외로 간행된 문집의 종수가 적었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청은 90종, 합천은 71종인데 비해 의령은 28종에 불과하였다. 목활자본 문집 28종만으로는 의령지역의 독자적인 학문의 성격과 지성인 집단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금속활자본·목판본·목활자본·석판본·신연활자본의 판종을 망라하여 의령에서 간행된 동장본 문집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의령 목활자본 문집 DB에 『의령군지』(의령군지편찬위원회 2003), 『19세기 경상우도의 학자들(상,중,하)(최석기 2016)』, 허권수(2013), 최석기(2016)의 연구에서 조사된 의령출신 인물의 문집을 추가하여 의령 문집 DB를 1차 보완하였고, 경상대학교 남명학 고문헌시스템과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등에서 서지사항과 원문이미지를 통해 판종, 문집 여부, 간행지 등을 확인하여 의령 문집 DB를 2차 보완하였다. 또한 현지 답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 dmlfud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파악하였다. 간행지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저자의 거주지를 확인하였다. 전통시대에는 집성촌에 세거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주로 후손에 의해 간행되는 문집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거주지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검증과정을 거쳐 의령지역 간행 109종의 동장본 문집을 연구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목판본·목활자본·석판본·신연활자본의 판종 분석, 문집·유집·실기의 유형 분석, 저자의 출생연도·성씨(姓氏)·본관(本貫)의 저자사항 분석, 발행연도·저자 사후 발행 소요기간·발행소(처) 등의 발행사항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의령 문집 간행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의령의 역사와 인물, 서원을 살펴보았다.

II. 문집 발행의 인문지리적 배경

1. 의령의 역사와 인문지리

경남 의령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음식으로는 망개떡이나 메밀국수(소바), 인물로는 홍 의장군 곽재우, 백산 안희제, 호암 이병철 등이다. 의령에 가 보면 ‘의병의 수도’, 의병대로, 의병박물관, 의병제전, 의병체험마을 등 홍의장군 곽재우에서 연상되는 ‘의병’의 이미지로 도시 정체성을 정립하고 있다. 아울러 정암(鼎巖)을 중심으로 반경 8km 이내에 부귀가 끊이지 않는다는 정암전설¹⁾을 바탕으로 부자마을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여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생가에서 출발하는 둘레길을 ‘부잣길’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의령의 역사를 보면, 신라시대에는 장함현(獐含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의령으로 이름을 고쳐서 함안군에 예속시켰다(신증동국여지승람 제31권, 경상도).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지금의 의령지역은 의령현(宜寧縣)과 신변현(新繁縣)이라는 독자적인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모두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읍(屬邑)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의령문화원 2008, 29). 고려 말인 1390년(공양왕 2)에 비로소 의령현에 수령인 감무(監務)가 파견됨으로써, 함천군의 속현이었던 신변현이 의령현에 이속되었다(의령문화원 2008, 30). 1876년 개항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이 1895년과 1896년에 연이어 단행되면서 의령현은 의령군으로 칭하게 되고, 진주부(晉州府)나 경상남도(省)에 속하게 되었다(의령문화원 2008, 34).

경상남도 중앙에 위치한 의령의 지형은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은 타원형으로 서북부에 해발 897m의 자갈산이 우뚝하게 섰고 동북부는 688m의 국사봉이 자리잡고 있다. 남부는 남강을 사이에 두고 함안군, 진주시와 경계를 이루며, 동부는 낙동강을 경계로 창녕군과 접하고 서부는 산청군, 서북부는 함천군과 연결되어 있다. 낙동강의 본류와 지류(남강)가 합류하는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강을 접한 남쪽은 비옥한 토지로 평야가 전개되고 있다. 산간지대에도 곳곳에 분지



<그림 1>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구역

1) 솔 바위[鼎巖] 전설 : 의령의 관문이자 함안군과 경계를 짓는 남강의 정암 철교 아래 강물 속에는 솔 뚜껑을 닮은 바위가 있으니 솔바위[鼎巖]라 한다. 옛부터 정암진(鼎巖津)으로 도선장(渡船場)이었고, 임진왜란 때에는 망우당 곽재우 장군이 왜적을 막았던 승첩지(勝捷地)인 정암진이다. 이 바위는 반쯤 물위에 드러나 있는데, 물 밑에는 솔다리처럼 세 개의 큰 기둥이 바치고 있다. 전설에 이 솔바위를 중심으로 반경 8km 이내에는 부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의령 정곡면 출신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진주 지수면 출신 금성[LG] 창업주 연암 구인회, 함안 군북면 출신의 효성 창업주 만우 조홍제 회장이 거의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며, 그 뒤 LG그룹에서 분리된 GS그룹의 허완구 회장도 진주 지수면 출신으로 모두 솔바위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4호)

가 발달하여 생활환경이 좋은 곳이다. 의령군의 행정구역은 1읍 12면으로 가례면, 궁류면, 낙서면, 대의면, 봉수면, 부림면, 용덕면, 유곡면, 의령읍, 정곡면, 지정면, 칠곡면, 화정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482.80km²이다(의령군청 홈페이지, 의령소개).

2. 의령의 인물

의령의 인물을 보면, ‘의령 3대인물 탐방코스’에서 말하는 3대 인물은 망우당 곽재우, 백산 안희제, 호암 이병철이다. 『의령의 뛰어난 인물(의령군 1985)』에서는 천강홍의장군 곽재우(郭再祐), 『용사일기』와 정의공 이로(李魯), 임란의 충절 사월정(沙月亭) 강수남(姜壽男), 한말의 우국지사 수파 안효제(守坡 安孝濟), 나라와 겨레에 바친 일생, 백산(白山) 안희제(安熙濟), 항일구국의 화신, 오당(迂堂) 조재학(曹在學), 과리장서 운동과 수산(壽山) 이태식(李泰植), 조국광복에 바친 생애, 남오(南樗) 이우식(李祐植)의 8인을 들고 있다. 한편 『의령을 빛낸 인물(의령군 2017)』에서는 망우당 곽재우, 백산 안희제, 호암 이병철, 관정 이종환의 4인을 들고 있다. 이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의령의 대표적 인물로 망우당 곽재우, 송암 이로, 백산 안희제의 3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망우당 곽재우(1552-1617)

곽재우(郭再祐)는 본관은 현풍(玄風), 호는 망우당(忘憂堂)이다. 1552년(명종 7) 8월 28일 지금의 의령군 유곡면(柳谷面) 세간리(世干里)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황해도관찰사를 지낸 정암(定庵) 곽월(郭越)이고 어머니는 진양강씨이다. 원래는 선조 대대로 경북의 현풍 솔례(率禮) 마을에서 살았으나, 그의 부모들이 외가(外家)가 있는 이곳 세간리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 16세에 남명 조식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도학(道學)의 심오한 이치를 배웠으며, 남명의 외손녀인 상산김씨(商山金氏)와 결혼하였다. 글 읽는 여가에 활쏘기와 말달리기 등 무예를 익히는 한편, 병서(兵書), 천문(天文) 등의 학문에도 통달하였다. 이처럼 문무(文武)를 겸비한 그의 학문은 뒷날 임진왜란에 크게 공헌하는 원천이 되었다. 27세 때 조정의 사신으로 가는 부친을 따라 연경(燕京)에 가서 새로운 문물에 접하고 감동을 받았다. 이때,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받은 포도연(葡萄硯)과 은으로 된 말안장, 붉은 비단은 임진왜란 때 천강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의 군장이 되었다(의령군 문화공보실 1985, 47-48).

곽재우는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활약하였다. 그는 휘하에 17명의 장수와 수천 의병을 거느렸으며 정암진, 기강, 현풍, 창녕, 화왕산성, 진주성 등의 전투에서 왜군을 무찔러 이들의 전라도 진격을 막았다. 전란 뒤에는 진주목사, 경상좌도방어사, 함경도관찰사 등을 지냈으며, 세상을 떠난 뒤에는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에 추증되었다. 숙종조에 충익(忠翼)이라는 시호가 내려지니 여기서 충(忠)은 나라에 충절을 다한다는 뜻이요, 익(翼)은 생각이 깊고 멀다는 뜻이다(의령군 문화공보실 1985, 47-48). 의령읍

중동에 광재우와 그 휘하 장수 17명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사당인 충익사(忠翼祠)가 있다.

가. 송암 이로(1544-1598)

이로(李魯)의 본관은 고성(固城)이고, 호는 송암(松巖)이다. 이효범(李孝範)의 아들로 의령군 정곡면 부곡에서 태어났다. 17세에 거제도에 와서 유배생활을 하던 유현(遊軒) 정황(丁煥)에게 찾아가 배움을 청하였고, 이듬해 수우당(守愚堂) 최영경(崔永慶)을 찾아 수학하고, 1563년에는 지리산 밑의 덕산(德山)으로 가서 남명 조식의 문인이 되었다(의령군 1985, 53-54). 1564년(명종 19) 진사시에 합격하고 1584년(선조 17) 봉선전(奉先殿) 참봉이 되었으며, 1590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듬해 직장에 임명되었으며, 정여립(鄭汝立)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죽은 최영경(崔永慶)을 신원하자고 요청하였다.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평소 교분이 두터웠던 조종도(趙宗道)와 더불어 유성룡(柳成龍)을 찾아가 국난에 헌신할 뜻을 고한 다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각 고을의 유생들에게 통문을 띄워 선비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경상도 함양에 가서 당시 경상도초유사로 있던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을 만나 소모관(召募官)의 직책을 얻으니 이후 학봉의 막하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영호남을 넘나들면서 의병을 모으는 한편, 전란으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량을 조달하는 일에도 매우 큰 활약을 하였으니, 이 공로로 김성일의 신임을 얻은 것이 뒷날 관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의령군 문화공보실 1985, 54-55).

1597년(선조 30)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에서 물러났다. 관직을 떠난 이로는 향리에 돌아와 전란 중에 얻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의병(義兵)들의 활약상과 임진왜란의 진행과정, 그리고 병란 중의 세속인심 등을 기록한 『용사일기(龍蛇日記)』²⁾를 완성하고, 이듬해인 1598년 5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의령군 1985, 56). 이 『용사일기』는 1763년(영조 39)에 후손인 이당혁(當赫)이 박달나무 52매의 양면에 새긴 것인데, 오늘날에는 48매만이(지방문화재 62호)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함회각(含輝閣)에 후손들에 의해 보존되어 온다. 송암은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낙산서원(洛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정의(貞義)이다. 저서로는 『용사일기』, 『문수지(文殊志)』, 『사성강목(四姓綱目)』, 『송암문집』 등이 있다.

다. 백산 안희제(1885-1943)

안희제(安熙濟)는 본관은 탐진(耽津), 호는 백산(白山)이다.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속칭

2) 송암 이로가 『용사일기(龍蛇日記)』를 저술한 목적은 부제인 ‘기학봉사적(記鶴峯事蹟)’에서 드러나듯이, 임진왜란 당시 학봉의 사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리하여 柳致明은 서문에서 “내가 일찍이 『용사일기』를 읽었는데, 그 행적은 鶴峯 金誠一 선생의 행적이고, 그 문장은 松巖 李魯 선생이 지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송암은 학봉이 1590년에 정사(正使) 황윤길(黃允吉)을 따라 일본을 다녀오는 내용부터 시작하여 1593년 4월 진주에서 진몰(陣沒)되어 고향인 안동에 묻힐 때까지의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술하였다(최재호, 2011: 132). 김성일은 전쟁 중에도 농사를 권하고 군량을 판출하며, 분쟁을 화해시켜 원한에 대적하게 한다. 백성들은 방문(榜文)으로 타이르고 서장(書狀)으로 책망하며 임금께는 장계(狀啓)로써 아뢰어 군무에 힘을 다하였다. 『용사일기』에는 이와 같이 죽음에 이르러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김성일의 애국충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설피마을에서 1885년에 안발과 창녕 성씨 사이의 맏아들로 태어나 7세에 고산재에서 서강(西崗) 안익제에게서 한학을 배웠다(의령문화원 2008, 134). 타고난 재주가 비범하여 10세에 사서오경을 통달하고, 1901년(17세) 의령군수가 주최한 백일장에서 한시를 지어 장원으로 뽑혔다. 19세 때 남도의 일원을 주유하면서 당대의 문사들과 시문(詩文)을 겨루는 처지가 되었으니 「남유일록(南遊日錄)」에 당시 백산이 남긴 시 32수를 실려 오늘에 전하고 있다(의령군 문화공보실 1985, 63-66).

1905년(21세) 을사늑약의 소식을 듣자 산림에 숨어서 부질없이 글귀만 읽을 수 없다고 말하고 서울로 올라가 보성전문학교 경제과에 입학했다가 보성전문학교 분규사건에 관련되어 양정의숙(養正義塾) 경제과로 전학하여 1910년에 졸업하였다. 1907년(23세)에 윤상은 등 유지들과 함께 동래 구포에 구명학교(龜明學校), 의령군 의령면에 의신학교(宜新學校), 1908년(24세)에는 고향인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에 소학교인 창남학교(創南學校)를 설립하고 청소년들에게 신학문을 교육하였다.

1909년(25세) 10월에 윤세복(尹世復) 등 80여 명의 동지들과 비밀청년단체인 대동청년당(大東靑年黨)을 조직해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1913년(29세) 이유석, 추한식 등 초량객주들과 부산 동광동에 백산상회(白山商會)를 세운다. 이어 1914년 가을에 고향 논밭을 팔아 백산상회를 전국적인 상업회사로 발돋움시켰다. 그가 백산상회를 설립한 까닭은 독립군 기지 건설을 위한 군자금 조달, 국내외 민족해방운동의 연락망 구축, 결정적 시기에 국내외 민족해방운동 세력이 협력하여 총궐기에 나서게 할 수 있는 국내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의령문화원 2008, 135).

1919년(35세) 3·1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인 의령에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해서 각지에 배포, 군민들의 봉기를 촉구하였다. 그 해에 백산상회를 백산무역주식회사(白山貿易株式會社)로 확대 개편해 상해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조달기관으로 활동하였다. 11월에는 기미육영회(己未育英會)를 조직해 다수의 애국청년학생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유학시켰으며, 이러한 장학생들 중에서 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되었다.

1925년(41세)에는 운영난에 빠진 중외일보를 인수해 중앙일보로 개칭하고 사장이 되어 일본의 총독정치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1927년(43세)에는 이시목(李時穆) 등과 자력사(自力社)를 조직해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 뒤 다시 만주로 건너가 1931년(47세) 대종교(大倥敎)에 입교하였다. 1933년(49세) 발해의 옛 수도인 동경성(東京城)에 발해농장을 세워 교포들의 생활 안정과 청소년 교육에 힘썼다. 중국인 지주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던 한국인 소작농 300여 호를 유치해 토지를 분배해 주고,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자작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발해농장 안에 발해학교를 설립해 농민들과 그 자녀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해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대종교를 신봉해 총본사전강(總本司典講)·교적간행회장(敎籍刊行會長) 등을 역임하면서 민족 고유의 종교를 통한 민족정신 고취에 힘썼다. 그러나 1942년(58세) 11월 일제가 대종교를 독립운동조직으로 간주해 만주와 국내에서 윤세복

이하 대중교 지도자 21명을 한꺼번에 체포한 임오교변사건이 일어났을 때 투옥되었다. 대중교의 독립운동에 대한 혐의로 잔혹한 고문을 받다가 9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듬해 목단강병원에서 순국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숨을 거두기에 앞서 장남 상록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가사(家事)든 국사(國事)든 오직 자력(自力)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의령문화원 2008, 140). 그의 생가는 1993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으며, 부산 중구 동광동에 백산기념관이 건립되었다. 그에게는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의령문화원 2008, 140).

3. 의령의 서원

지역에 소재한 서원과 서원의 배향인물을 통해서 지역의 학문적 성향과 정치적 지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문집 간행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남 의령군에 소재한 서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의령군 소재 서원 일람표(구산우 외 2008, 272 참조)

| | 서원명 | 소재지 | 제향인물 | 설립주체 | 창건연대 |
|---|------------|-------------|-------------------|--------------|--------------------|
| 1 | 낙산서원(洛山書院) | 부림면 경산리 | 李魯 | 고성이씨 문중/유림 | 사우창건(1802), 서원 승원 |
| 2 | 덕곡서원(德谷書院) | 의령읍 하리 621 | 李滉 | 의령현감 윤순거 | 1654(효종5), 1660 사액 |
| 3 | 미연서원(媚淵書院) | 대의면 중촌리 | 許穆 | 남인계 인사/허목 후손 | 1825(순조25) |
| 4 | 신계서원(新溪書院) | 부림면 감암리 911 | 莊襄, 鄭俊 | 향토사립 | 1861(철종12) |
| 5 | 어강서원(漁江書院) | 용덕면 정동리 | 姜壽男 | | 순조연간 (1801-1834) |
| 6 | 의양서원(宜陽書院) | 유곡면 칠곡리 판곡 | 南孝溫, 南振, 南龍翼, 南昌熙 | 의령남씨 후손 | 1861(철종12) |
| 7 | 태암서원(泰巖書院) | 용덕면 죽진리 504 | 田祖生, 田子壽 | 유림/ 담양전씨 후손 | 1789 창건, 1820 사액 |

가. 낙산서원(洛山書院)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에 있으며, 1802년(순조 2)에 정의공(貞義公) 이로(李魯, 1544~1598)를 추모하기 위해 고성이씨 문중에서 세운 서원이다. 처음에는 경덕사(景德祠)로 창건하였다가 후에 낙산서원으로 승원(陞院)되었다. 1868년(고종 5)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다가 1940년 후손들과 유림들이 옛 터에 낙산서당(洛山書堂)으로 복원하였다.

서원에는 1852년(철종 3) 간행한 이로의 문집인 『송암집(松巖集)』과 이로의 조카인 이

만승의 문집 『괴당집(槐堂集)』의 책판 76매가 남아있다. 『송암집』에는 소모문(召募文)과 모략문이 들어있는데 문장과 내용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만승이 쓴 『괴당집』은 이만승이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우애있게 지내라고 당부한 것이다. 『송암문집』 및 『괴당집』 책판 76매는 1979년 12월 29일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1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의령읍 의병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나. 덕곡서원(德谷書院)

의령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서원으로 의령읍 하리의 남산천 건너편에 있으며, 퇴계 이황을 향사하기 위해 건립된 서원이다. 퇴계 이황이 의령을 방문하게 된 동기는 선생의 장인인 허찬(許贊)이 30여 년간 경북 영천군(榮川郡) 초곡동(영주시 문정동)에서 우거하다가 출생고향인 가례촌으로 낙향하면서 이곳 처가댁을 방문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퇴계 이황은 가례촌을 비롯한 인근의 함안, 진주 등지를 수차례 방문하고 지역 유림들과 학문적으로 교류와 강론을 하여 지방의 유학교육을 융성케 하였다. 선생 사후 1654년(효종 5)에 선생의 유학사상과 덕행을 추앙하고 후대에 전해야 한다는 유림들의 건의에 따라 당시 의령현감이던 윤순거(尹舜擧)가 덕곡촌 입구에 서원을 건립했으며, 1660년(현종 원년)에 사액서원이 되어 지역 유학 교육의 중추가 되었다.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목조건물 전부가 철거되었으나, 1902년(고종 39) 유림들이 강당과 솟을대문을 복원하였고, 1992년에 사우각(祠宇閣)이 복원되었다(한국서원연합회, 덕곡서원).

퇴계 이황이 처가인 가례마을의 빼어난 경관을 보고 마을 안쪽 암벽에 ‘嘉禮洞天’이라는 친필의 글씨를 남겼다. 그 후 고을 유생들이 가례동천 암벽 앞에 선생의 유덕을 기리는 ‘퇴계이선생유허비(退溪李先生遺墟碑)’를 세웠는데, 비문은 수파(守波) 안효제(安孝濟)가 지었다(의령군 1985).

다. 미연서원(岷淵書院)

의령군 대의면 중촌리에 있으며, 조선 중기 학자로서 병자호란을 피해 의령에 살았던 양천(陽川) 허씨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의 영정(影幀)을 봉안하기 위하여 1825년(순조 25)에 남인계 인사들과 허목 후손들의 발의로 세워진 서원이다. 원래는 대의면 행정리에 있었으나 1868년(고종 5)에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된 이후 1901년에 미수 허목선생이 후학을 양성했던 이곳에 강당인 이의정(二宜亭)과 영당(影堂)을 옮겨지었으며, 1975년에 서원을 복원하였다. 이곳의 장관각에는 1905년 허찬(許贊)이 중심이 되어 허목의 문집인 『미수기언』을 중간한 책판이 보관되어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라. 신계서원(新溪書院)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에 있으며, 1467년(세조 13)에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장양(莊襄)·

정준(鄭俊)을 모시기 위하여 1861년(철종 12) 향토사림이 뜻을 모아 창건하였다. 1868년(고종 5)에 서원 훼철령으로 훼철되었던 것을 1956년에 중수하였다. 그 후 풍파에 손상되어 1994년 4월에 건물을 다시 세웠으며, 2006년에 그 용모를 갖추어 복원하였다.

마. 어강서원(漁江書院)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에 있었으며, 임진왜란에서 전사한 충렬공(忠烈公) 강수남(姜壽男, 1552-1592)을 제향하기 위해 1820년(순조 20)에 건립한 서원이다. 처음에는 어강사(漁江祠)로 창건하였다가 어강서원(漁江書院)으로 승원되었다. 1868년(고종 5)에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된 후 복설되지 못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

강수남(姜壽男)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산(晉山)이고 남명 조식의 문인이다. 1580년(선조 13)에 문과 급제한 후 예조·병조의 좌랑과 정랑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서울과 평양이 차례로 함락되자 경기도관찰사 심대(沈岱)의 종사관으로 출전하여 전사하였다.

바. 의양서원(宜陽書院)

의령군 유곡면 칠곡리 관곡에 있으며, 조선 단종 때의 문신이며 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온(南孝溫)을 비롯하여 남진, 남용익, 남창희 등 의령남씨 4위를 모시기 위해 의령남씨 후손들이 1861년(철종 12)에 세운 서원이다.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다가, 1924년에 재건되었다.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호는 추강(秋江)이며,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 등과 함께 수학했다. 1480년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그 뒤 다시는 과거에 나가지 않았다. 당시의 금기에 속한 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이개(李垿)·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 등 6인이 단종을 위하여 사절(死節)한 사실을 「육신전(六臣傳)」이라는 이름으로 저술하였다. 1478년(성종 9)에 문종의 비 현덕왕후의 능인 소릉(昭陵)을 복위할 것 등을 상소하였는데,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에 소릉 복위를 상소한 것을 난신(亂臣)의 예로 규정하여 부관참시(剖棺斬屍) 당하였다. 1513년(중종 8) 소릉 복위가 실현되자 신원되어 좌승지에 추증되었고, 1782년(정조 6)에 다시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남진(南振)의 호는 추계(秋溪)이다.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어 독실히 공부하여 도학(道學)에 능했으며 후진 양성에 힘썼다. 의양사원과 금계서원(錦溪書院)에 제향되었다.

남용익(南龍益)은 조선중기의 문신·학자로 호는 호곡(壺谷)이다. 1646년(인조 24) 진사시, 1648년 문과에 급제한 뒤, 시강원설서·성균관전적과 삼사를 거쳐, 병조좌랑·홍문관부수찬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문장에 능하고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효종·현종·숙종 3대에 걸쳐 청화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문명을 날렸으나 즐거워하는 기색이 없었고, 늘 근신하고 근

면하였다. 저서로는 신라시대부터 조선 인조대까지의 명인 497인의 시를 모아 엮은 『기아(箕雅)』 및 『부상록(扶桑錄)』, 그리고 자신의 시문집인 『호곡집(壺谷集)』을 남겼다.

남창희(南昌熙)의 호는 이천(夷川)이다. 농와(龕窩) 남용익(南鵬翼)의 후손으로 정재규(鄭載圭)에게 수학하여 학문의 근본을 깨우쳤으며 문장과 도학(道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 태암서원(泰巖書院)

의령군 용덕면 죽전리에 있으며, 담양전씨 문원공(文元公) 경은(耕隱) 전조생(田祖生, 1318-1355)과 그의 손자 회정(晦亭) 전자수(田子壽)를 추모하기 위해 유림과 담양전씨 후손들이 1789년(정조 13)에 세운 서원이다. 1820년에 사액서원이 되었으나,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해체되었다가 다시 세운 것이다.

전조생은 고려시대의 문신이자 학자로 학문과 문장에 뛰어났으며 충혜왕의 두 왕자를 가르쳤다. 충정왕이 왕위에서 물러난 뒤 은둔하였으며,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였을 때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신하의 도리를 지키고자 은거한 고려 두문동(杜門洞) 72현의 한 사람이다. 전조생의 손자 전자수는 고려말의 문신으로 광정대부 첨의평리 겸 집현관 대제학을 지냈다.

의령의 서원을 통해 의령지역의 학문적·정치적 지향을 살펴보면, 의령은 퇴계 이황의 처가곳이고 기호남인의 영수인 허목이 우거했던 영향으로 덕곡서원과 미연서원을 중심으로 경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학문적으로는 퇴계학, 정치적으로는 남인을 지향하고 있는 문중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덕곡서원의 ‘퇴계이선생유허비(退溪李先生遺墟碑)’의 비문을 지은 수파 안효제(安孝濟)의 탐진안씨, 『미수기언』을 중간한 소와 허찬의 양천허씨가 대표적이다.

Ⅲ. 의령지역의 문집 간행경향 분석

1. 판종 분석

경남 의령지역에서 발행된 문집 109종의 판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의령지역 간행 문집의 판종분석

| | 목판본 | 목활자본 | 석판본 | 신연활자본 | 계 |
|---|-------|-------|-------|-------|------|
| 종 | 14 | 52 | 25 | 18 | 109 |
| % | 12.8% | 47.7% | 22.9% | 16.5% | 100% |

경남 의령지역에서 발행된 문집 109종의 판종을 분석한 결과, 위 <표 2>에서 보듯이 목

활자본(52종) - 석판본(25종) - 신연활자본(18종) - 목판본(14종)의 순으로 목활자본은 반수에 가까운 52종(47.7%)으로서 가장 많고, 목판본은 14종(12.8%)으로서 가장 적다. 이를 통해 의령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확산하는 목판본(송정숙 2013, 255-256)은 고비용과 장기간의 제작기간으로 인해 줄어들고, 보다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주문제작이 가능한 목활자를 이용한 문집 제작이 대중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이점은 전통적인 목판본과 목활자본이 양극단에 있고 새롭게 도입된 석판본과 신연활자본이 새롭게 부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학문공동체인 유림과 혈연공동체인 후손들이 합심하여 세운 서원의 경우, 서원에서 향사하는 인물인 이로, 허목, 전조생의 문집은 목판으로 판각되었다. 이는 서원에서 향사하는 인물의 학문을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는 후손의 열망과 문중을 넘어 유림으로 문집의 배포범위가 광범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수가 필요하였고, 필요시마다 수시로 인출 가능한 목판을 선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령에서 간행된 목판본 문집인 미수기언책판(眉叟記言冊板)은 조선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미수 허목(許穆, 1595-1682)의 시문집인 『미수기언(眉叟記言)』 93권 20책을 발행하고자 제작된 것이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2호로 지정되었으며, 의령군 대의면 중촌리에 있는 양천허씨 문중의 이의정(二宜亭)에서 판각한 책판 869매를 장판각에 보존하고 있다. 서원 건립 당시에 봉안문과 상향축문은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이 지었다.

허목은 본관은 양천(陽川), 호는 미수(眉叟),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1615년(광해군 7) 정언눌(鄭彦訥)에게 글을 배우고, 1617년 거창현감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가서 문위(文緯)를 사사하였다. 또한 그의 소개로 퇴계의 제자인 정구(鄭述)를 찾아가 스승으로 섬겼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로 인해 스승 정구로부터 퇴계의 학문을 이어받아 다시 그 학문이 성호 이익에 의해 계승, 발전되는 구실을 하였다. 『미수기언』은 1689년(숙종 15) 왕명에 의해서 전라도 나주 미천서원(眉泉書院)에서 처음 발행되었고, 그 후 1905년 의령에 사는 허찬(許贊)이 중심이 되어 향토 사림의 도움으로 이의정(二宜亭)에서 중간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미연서원). 이 책이 의령에서 중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허목이 병자호란 때 의령에 피난한 이래 줄곧 연고를 맺고 있었고, 둘째 이웃 산청에서는 허전(許傳, 1797~1886)의 『성재문집(性齋文集)』을 발행하였고, 진주 사림들은 『주자어류(朱子語類)』 50책을 발행하는 등 인근 지역에서 선현들의 저술 발행 열의가 팽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동기는 1881년(고종 18)에 이 지방에 사는 이석홍(李錫弘)이 그의 스승인 성재 허전(許傳)의 권유로 허목이 지은 『경례유찬(經禮類纂)』을 발행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허목이 병자호란을 피해 은거하며 살았던 의령 대의면 모의(慕義)에 1901년에 이의정(二宜亭)을 지었고, 이어 허찬(許贊)이 중심이 되어 1905년에 『미수기언』을 중간하였다. 그 뒤 1920년 그 자리에 영정을 모시고 춘추로 향사를 지낼 사우인 숭정사(崇正祠)와 책판을 보관할 장판각을 지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성을 보면 원집 67권, 별집 26권인데, 원집은

허목 자신이 스스로 편찬한 것이고, 별집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문인들이 만든 것이다.

목판의 판각작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목판본 문집은 서원에서 문인과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의령에 사액서원으로는 이황을 향사하는 덕곡서원과 태암서원의 2곳인데, 태암서원에서 1종 발행되었을 뿐 덕곡서원에서는 출판활동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퇴계가 의령에서 강학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학통을 잇는 제자가 배출되지 않았고, 처가곳으로 후손도 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수 허목을 모신 미연서원이 훼손되고 난 뒤에 세워진 의의정에서 『미수기언』이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의령에서는 퇴계학이나 남명학의 도통을 잇는 두드러진 학자가 배출되지 않았으므로 서원에서 향사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목판본 문집 출력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용이 많이 들고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는 목판 인쇄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단기간에 조성이 가능한 목활자 인쇄가 많은 것은 목활자 인쇄가 대중화되는 구한말 이후에 많이 인출되는 문집 발행 시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신연활자본은 신식연활자(新式鉛活字)라고도 하는데 이는 1436년(세종 18)에 납으로 만든 활자인 병진자(천혜봉 1997, 300-301 ; 송정숙 1998, 210)와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조선후기인 1883년(고종 20) 신문·서적 등을 인쇄하기 위해 통리아문 박문국(博文局:인쇄소)을 설치하고 일본에서 신식인쇄기와 연활자를 수입하였다. 수입한 이 연활자를 같은 납활자인 병진자와 구별하기 위해 신연활자 또는 신식연활자라 불렀다. 이 활자로 한국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를 발간하였다. 이때 우리나라의 근대식 민간 인쇄 업체인 출판사 광인사(廣印社)가 설립된 이후 신연활자 인쇄는 민간의 지식, 정보를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석판본(石版本)은 석회석 위에서 물과 기름이 혼합되지 않는 원리를 이용하여 판판한 돌의 표면 위에 비누와 지방을 섞은 재료로 글자와 그림 따위를 제판하여 찍어낸 책으로 석인본(石印本)이라고도 한다. 평판인쇄의 가장 초기의 형태로서 그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설비가 적게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쓰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농상공부(農商工部) 인쇄국이 우표, 엽서, 상표 등을 찍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그것이 1900년에 농환국(農團局) 인쇄소에 흡수되었다가 1904년에 탁지부(度支部) 인쇄국으로 개편되면서 정부의 석판인쇄를 담당하였다(천혜봉 2010, 566-568).

한편, 민간에서도 석판인쇄 시설을 갖추고 석판인쇄하는 곳이 속속 생겨났다. 그 초기 인본으로는 보성사(普成社)에서 1908년에 『대가법첩(大家法帖)』, 신구서림(新舊書林)에서 1913년에 『문자유집(文字類輯)』, 신문관(新文館)에서 1913년에 『훈몽자회(訓蒙字會)』, 문아당(文雅堂)에서 1914년에 『아미타경』, 보진재(寶晉齋)에서 1914년에 『신식초간독(新式草簡牘)』을 비롯하여 1919년에 『수당하술(隨堂賀述)』과 1922년에 『□ | 즈초서 언간필법』을 각각 찍어낸 것이 전래되고 있다. 이 석판인쇄는 주로 일제강점기에 성행되었고, 광복 이후에도 族譜, 文集, 實紀 등을 찍는데 主用되었다(천혜봉 2010, 568).

의령지역에서 석판본과 신연활자본 문집 발행이 많은 것은 목판이나 목활자인쇄에 비해 서

비용으로 단기간에 인출이 가능한 새로운 인쇄미디어를 문집 발행에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문집의 유형 분석

경남 의령지역에서 발행된 문집 109종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의령지역 간행 문집의 유형 분석

| 구분 | | 종수 | % | 문집명(종수) |
|------------|----|----|-----------|--|
| 문집 (文集) | 별집 | 시문 | 49(45%) | 覺齋文集, 古今堂集, 槐堂先生文集(2종), 栗菴集, 老川集, 雷阜集, 尼山集, 德樵菴, 遜菴集, 忘憂先生文集(2종), 勉庵集, 鳴岡集, 無名齋文集, 無聞軒文集, 眉叟記言, 碧溪遺稿, 飛泉集, 四愚集, 惺菴文集, 小峰集, 素窩文集, 松溪文集, 松巖集, 壽山集, 守庵文集(2종), 守坡文集, 深齋先生文集, 深齋先生續集, 玉山雜稿, 偶齋文集, 愚圃文集, 栗山集, 宜庵集, 夷川集, 立巖先生文集, 紫東集, 竹村先生文集, 芝岡集, 癡史集, 退休先生文集, 吃窩集, 石梧文集, 竹牖先生文集, 平菴文集, 弘堂文集, 華隱文集 |
| | | 시 | 1(0.9%) | 默軒詩稿 |
| | 합집 | 시문 | 1(0.9%) | 涵育亭聯芳集 |
| | | 시 | 2(1.8%) | 龍溪晚溪兩世遺稿, 田氏橋梓錄 |
| | 소계 | | 53(48.6%) | |
| 유집 (遺集) | 별집 | | 47(43.1%) | 桂窩遺稿, 佳隱逸稿, 謙受齋遺稿, 歸田遺稿, 克庵遺稿, 克齋遺稿, 南岡遺稿, 南谷遺集, 農軒遺稿, 澹廬遺稿, 澹齋遺稿, 東山遺稿, 遜巖遺稿, 鈍庵遺稿, 晚覺堂遺稿, 晚悟遺稿, 慕巖遺稿, 蒙軒遺稿, 无惺遺稿, 文溪遺稿, 峒東遺稿, 石室居士遺稿, 石川遺稿, 素履齋遺稿, 松隱遺稿, 水月堂逸稿, 昭山遺稿, 守齋遺稿, 心守軒遺稿, 龍湖遺稿, 友山遺稿, 愚山遺稿, 愚川遺稿, 鷹樵遺集, 一醒遺稿, 井廬遺稿, 芝峯先生遺稿, 紫山遺稿, 蒼溪遺稿, 滄浪亭遺稿, 春塢遺集, 恥齋遺稿, 太巢遺集, 學山遺稿, 海巢遺稿, 活菴遺稿, 晦東遺稿 |
| | | 합집 | - | |
| | 소계 | | 47(43.1%) | |
| 실기 (實記) | 별집 | | 7(6.4%) | 耕隱實紀(2종), 德恩監實記, 陶丘先生實記, 養眞堂實記, 漁火趾美錄, 止軒實記 |
| | | 합집 | 2(1.8%) | 紫巖亭聯芳集, 楊山世獻 |
| | 소계 | | 9(8.3%) | |
| 계 | | | 109(100%) | |

위 <표 3>에서 보듯이, 경남 의령지역에서 발행한 문집 109종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문집은 53종(48.6%), 유집은 47종(43.1%)으로 문집과 유집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실기는 9종으로서 가 가장 적었다.

전체 109종 가운데 1인의 문집인 별집은 104종(95.4%)이고, 2인 이상의 문집인 합집은 5종(4.6%)이다. 합집 가운데 문집의 합집인 『함육정연방집(涵育亭聯芳集)』은 서명윤(徐命潤)의 『육우당문집(六友堂文集)』과 서명룡(徐命龍)의 『삼우당문집(三憂堂文集)』의 합집이고, 시집의 합집인 『용계만계양세유고(龍溪晚溪兩世遺稿)』는 심이문(沈以汶)의 『龍溪詩集』과 심지한(沈之漢)의 『晚溪詩集』의 합집이다. 유집의 합집인 『자암정연방집(紫巖亭聯芳集)』은 강숙승(姜淑昇)의 『한와유사(寒窩遺事)』, 강숙승의 종제(從弟)인 강경승(姜慶昇)의 『자

암옹유사(紫巖翁遺事)』, 강길승(姜吉昇)의 『수초당유사(守初堂遺事)』, 강현승(姜顯昇)의 『역옹유사(櫟翁遺事)』의 합집이다.

시문(詩文)으로 이루어진 문집은 전체 109종 가운데 106종(97.2%)으로 거의 대부분이고, 시(詩)로만 이루어진 시집은 목활자본인 전숙(田驥)과 전희진(田禧鎭)부자의 『전씨교재록(田氏橋梓錄)』, 심이문(沈以汶)과 심지한(沈之漢)의 『용계만계양세유고(龍溪晩溪兩世遺稿)』, 연활자본인 강진흠(姜進欽)의 『묵헌시고(默軒詩稿)』의 3종(2.8%)뿐이다.

3. 문집의 저자사항 분석

가. 출생연도

경남 의령지역에서 발행된 문집 109종의 저자 104인의 활동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저자의 출생연도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의령지역 발행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

| 출생연도 | | 인원(종수) | | 출생년(인원) |
|------|-----------|----------|---------|---|
| 14세기 | 1300-1349 | 1(2) | 1(2) | 1318(1, 2종) |
| | 1350-1399 | | - | - |
| 15세기 | 1400-1449 | 1(1) | 1(1) | (출생년 미상-1460, 李種) |
| | 1450-1499 | | - | - |
| 16세기 | 1500-1549 | 10(12) | 3(3) | 1510(1), 1540(1), 1544(1) |
| | 1550-1599 | | 7(9) | 1551(1), 1552(1, 2종), 1556(1), 1568(1), 1590(1, 2종), 1595(1), 1599(1) |
| 17세기 | 1600-1649 | 7(7) | 3(3) | 1624(1), 1628(1), 1643(1) |
| | 1650-1699 | | 4(4) | 1651(1), 1671(1), 1692(1), 1696(1) |
| 18세기 | 1700-1749 | 10(10) | 3(3) | 1725(1), 1737(1), 1747(1) |
| | 1750-1799 | | 7(7) | 1758(1), 1770(1), 1771(1), 1778(1), 1782(1), 1784(1), 1797(1) |
| 19세기 | 1800-1809 | 16(17) | 2(2) | 1803(2) |
| | 1810-1819 | | 1(1) | 1811(1) |
| | 1820-1829 | | 5(6) | 1822(1), 1824(2, 3종), 1826(1), 1829(1) |
| | 1830-1839 | | 3(3) | 1831(1), 1837(1), 1839(1) |
| | 1840-1849 | | 5(5) | 1840(1), 1842(1), 1843(1), 1846(1), 1849(1) |
| | 1850-1859 | 54(55) | 12(12) | 1850(4), 1851(1), 1852(1), 1853(1), 1854(1), 1855(1), 1857(1), 1858(1), 1859(1) |
| | 1860-1869 | | 9(9) | 1860(1), 1864(1), 1865(1), 1866(2), 1868(2), 1869(2) |
| | 1870-1879 | | 14(15) | 1870(3), 1873(1, 2종), 1874(1), 1875(2), 1876(1), 1878(1), 1879(5) |
| | 1880-1889 | | 9(9) | 1882(2), 1883(1), 1884(2), 1887(1), 1888(1), 1889(2) |
| | 1890-1899 | | 10(10) | 1890(2), 1891(2), 1892(2), 1896(1), 1897(2), 1899(1) |
| 20세기 | | 1(1) | 1902(1) | |
| 미상 | | 4(4) | - | |
| 계 | | 104(109) | | |

경남 의령지역 발행 문집 109종의 저자 104인의 출생연도는 위 <표 4>에서 보듯이 고려 말인 14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6세기에 걸쳐있다. 1318년에 출생한 『경은실기(耕隱實紀)』의 저자 전조생(田祖生, 1318-1355)이 가장 빠르고, 1902년에 출생한 사람은 『회동유고(晦東遺稿)』의 저자 전용기(田濬起, 1902-1978)가 가장 늦으며,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584년이다.

문집이 2종 출판된 저자는 전조생, 광재우, 이만승, 이근수, 조공섭의 5인이다. 전조생(1318-1355)의 『경은실기』 3권1책은 목판으로 1822년에 초간, 1900년에 중간되었다. 광재우(1522-1617)의 『망우선생문집』 2권1책은 목판으로 1629년에 초간, 1771년에 중간되었다. 이만승(1590-1659)의 『괴당선생문집』 2권1책은 1851년에 목판으로, 1941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이근수(1824-?)의 『수암문집』은 1916년에 목활자로 2권2책이, 1970년에 석판으로 4권1책이 인출되었다. 조공섭(1873-1933)의 『심재선생문집』은 사후 2년만인 1935년에 신연활자로 31권15책이, 1966년에 석판으로 10권5책이 인출되었다.

의령지역 문집 간행 저자 104인의 세기별 분포를 보면, 19세기에 출생한 인물이 70인(67.3%)으로 가장 많고, 16세기와 18세기에 각 10인(9.6%), 17세기에 7인(6.7%), 14세기·15세기·20세기는 각 1인(1%)이다. 19세기 출생한 인물 70인 가운데 19세기 후반, 즉 1850년부터 1899년까지의 50년 동안에 출생한 인물이 54인으로 전체의 51.9%이다. 이는 의령지역 문집 간행 저자의 과반이 20세기에 활동한 근세 인물임을 의미한다.

14세기에 출생한 인물은 1인으로 고려 후기의 학자인 담양전씨 전조생(田祖生, 1318-1355)으로 호는 경은(耕隱)이다. 그는 1336년(충숙왕 복위 5) 문과에 급제하였고, 1341년(충혜왕 복위 2)에 왕이 전조생을 불러 두 왕자를 보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1346년(충목왕 복위 2) 이제현(李齊賢)·이곡(李穀) 등과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찬정(撰定)하였고, 우탁(禹倬)을 따라 정주(程朱)의 성리학을 강명(講明)하였다. 1349년(충정왕 1) 찬성첨의부사(贊成僉議府事)에 제수되었고, 1351년에 왕이 강화에서 손위(遜位)하자, 이강(李岡)·박사신(朴思愼)·한수(韓修) 등과 호종(扈從)하였다가 그 길로 운둔하여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계자시(誡子詩)」와 「경학문(警學文)」을 지어 후진을 계도하였다. 의령의 태암서원(泰巖書院)에 별향(別享)되었고, 구산서원(龜山書院)·소계서원(蘇溪書院)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원(文元)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조생의 『경은실기』가 의령에서 목판으로 1822년, 1900년 2차례나 간행된 것은 의령에 세거하는 담양전씨 전훈의 후손들이 전훈의 6대조로서 현조(顯祖)인 전조생의 『경은실기(耕隱實紀)』를 간행하여 향당에 배포함으로써 담양전씨 문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15세기 출생인물은 1인으로 『덕은감실기(德恩監實記)』의 전주이씨 이종(李種, ?~1460)이다. 이종은 조선 태종의 여섯째 아들 희령군(熙寧君)의 증손으로 호는 이제재(夷齊齋)이다. 인천부수 이흠(李欽)의 차남이며 명선대부(明善大夫)이다. 『덕은감실기』의 <유사(遺事)>에 의하면, 이종이 8살 때 『사기』를 읽다가 백이숙제의 고사에 이르러 그 절개와 충의에

감탄하고는 시, <讀史詠夷齊>를 지었다. 수양대군에게 손위(遜位)하고 상왕으로 있던 단종이 1457년 6월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되어 갈 때 밤을 타서 배알(拜謁)하니 단종이 “신하나 종친이 모두 화를 입을까 두려워 피하는데 너는 홀로 어찌하여 이처럼 간절한가? 내가 너의 절의를 잊지 않겠노라” 하였다. 그후 희령군의 궁전(宮田)이 있는 밀양 고답리로 들어왔다. “나라에 변고[금성대군의 단종복위사건이 발각됨]가 이와 같으니, 산들 어떠하며 죽은들 어떠하라. 임금을 좇아 생사를 같이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하고는 10월 12일 밤에 출발하여 24일 영월에 다다르니 금부도사 왕방연이 약을 받들고 와서 재촉하였다. 단종이 창졸간에 승하하니 엄홍도와 함께 염습하여 영월군 북쪽 동을지산(冬乙旨山)에 장례지냈다. 엄홍도가 “공은 누구인데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기에 왔는가” 하고 물었으나 끝내 성명을 말하지 않고 밀양에 돌아왔다고 한다(덕은감실기). 재실(齋室)을 이제재(夷齊齋)라 편액(扁額)하고 밤낮으로 통곡하다가 꿈에 단종(端宗)과 육신(六臣)을 만나보고는 드디어 곡기를 끊고 절사(節死)하였다(밀양지편찬위원회 편 1987, 662)고 한다.

16세기 출생인물은 10인인데, 이 가운데 16세기 전반기 출생인물은 3인으로 『도구선생실기(陶丘先生實記)』의 이제신(李濟臣, 1510-1582), 『죽유선생문집(竹瀟先生文集)』의 오운(吳漣, 1540-1617), 『송암집(松巖集)』의 이로(李魯, 1544-1598)이다.

이제신과 이로의 본관은 고성(固城)이다. 『송암집』의 저자인 이로는 <2.2 의령의 인물>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제신은 10세 때인 1519년 고향 사람 안주(安宙)로부터 『소학』·『시경』·『서경』 및 史學을 배웠다. 21세 때인 1530년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였고, 종종 말년에는 김범 등과 다시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35세 때인 1544년에는 김해 신어산 아래 산해정(山海亭)에서 강학하고 있던 남명 조식을 찾아가 한 달 남짓 곁에서 극진히 모셨다. 이후 남명이 합천 삼가의 뇌룡정(雷龍亭)에 있을 때에는, 그가 사는 의령 모아동(毛兒洞)과는 10여 리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그는 스승 남명을 가까이서 모시며 부지런히 공부하였다. 남명이 61세 때 지리산 아래 덕산으로 들어가자 그도 덕산으로 이주해서는 하루가 멀다 않고 남명을 찾아가 학문과 세상일들을 이야기하였다. 덕산 아래 시냇가에 질기와[陶瓦]를 굽는 언덕이 있었는데, 그는 그 언덕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살면서 호를 ‘陶丘’라고 하였다(남명학교문헌시스템, 陶丘實記 해제).

이제신의 『도구선생실기』는 “丁未六月日開刊 寒泉亭藏板”이라는 刊記로 미루어 1907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손인 이태식(李泰植)이 약간의 시문과 부록 문자를 모아 한 책으로 만든 것이다.

오운(吳漣, 1540-1617)의 본관은 고창(高敞)이고, 호는 백암(柏巖) 또는 울계(栗溪)라고도 하며 만년에는 죽유(竹瀟)라 하였다. 오운의 증조 오석복(吳碩福)이 만년에 의령현감을 지낸 뒤 함안 모곡리에 정착하게 되어 함안사람이 되었다(허권수 2013, 290). 함안에 정착하게 된 것은 부인 선산김씨의 외가가 함안에 있었고, 아들 오언의(吳彦毅)의 동서 조호연(曹孝淵)이 창원에 살았기 때문이다. 조부 죽오(竹塢) 오언의(吳彦毅)는 진사에 급제하여 전의

현감(全義縣監)을 지냈다. 퇴계의 숙부인 송재(松齋) 이우(李瑀)의 사위가 되어 퇴계와 어린 적부터 교유하였다. 오운은 1540년 함안군 모곡리에서 태어났다. 18세 전후하여 의령에 세거하던 몽재(蒙齋) 허사렴(許士廉)의 만사위가 되었다. 허사렴은 퇴계 이황의 만처남이므로 오운은 퇴계 처남의 사위, 즉 처질서(妻姪壻)가 된다. 허사렴은 의령 가례동천(嘉禮洞天)에 살았는데, 많은 전장(田莊)과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 있었으므로, 만사위인 오운이 그 집과 많은 전답을 상속받았다. 이로 인하여 오운은 의령 가례에 살게 되었다.

19세(1588년) 때 김해 산해정(山海亭)으로 남명 조식을 찾아뵙고 그의 제자가 되었으며, 25세(1564년) 때에는 도산서당으로 퇴계 이황을 찾아뵙고 제자가 되었다. 27세(1566년) 때 문과에 급제하여 31세(1570년) 때 學錄, 37세(1575년) 때 성균관 박사, 41세(1580년) 때 다시 성균관 전적으로 나아가 정선군수를 거쳐 충주목사 겸 춘추관편수관에 제수되어 충주에 팔봉서원(八峯書院)을 세우고 그 지역 출신의 음애(陰崖) 이자(李紆), 탄수(灘叟) 이연경(李延慶) 등을 향사하였다. 45세 때 『송재시집(松齋詩集)』을 간행하였다. 퇴계가 송재 이우의 시 원고를 편집하여 친필로 베껴 써 두었는데, 오운이 녹봉을 기울여 퇴계 친필 그대로 판각하여 간행하였다. 48세 때 함안군수로 재임 중이던 한강(寒岡) 정구(鄭逯)와 함께 『함주지(咸州誌)』를 편찬하였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방지이다.

53세(1592년) 때 의령의 집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하였다. 단시일에 여러 고을이 와해되고 수령과 병사들은 대부분 도망가 숨으니 왜적들은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왔다. 이 때 망우당 곽재우를 도와 의병을 일으켜 낙동강과 남강으로 오는 왜적을 격멸하고, 경상도 초유사(招諭使)로 부임한 학봉 김성일(金誠一)을 맞이하여 인도하였다. 김성일은 오운을 소모관(召募官)으로 임명하여 흩어진 병사들을 불러모아 재편성하도록 하였다. 1593년 학봉이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자 진주성으로 들어가 학봉을 문병하였고, 학봉이 별세하자 조종도(趙宗道), 이로(李魯) 등과 함께 시신을 수습하여 가매장하였다. 이 해 상주목사로 임명되었으나, 얼마 있지 않아 병으로 사직하고 영주(榮州) 초곡(草谷)으로 돌아왔다. 이때 영주에 있으면서 壬辰癸巳 연간의 전쟁상황을 정리하여 『용사난리록(龍蛇亂離錄)』을 저술하였다.

61세(1600년) 때 『퇴계문집』 간행에 참여하여 「퇴계연보」를 교정하고, 72세(1611년) 때 『주자문록(朱子文錄)』을 완성하였다. 오운이 퇴계의 뜻을 이어 주자가 지은 封事·疏劄·雜著·序·記 가운데서 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들을 가려 뽑아 이 책을 편찬하였다. 75세(1514년) 때에는 67세(1606년) 때 편찬하였던 『동사찬요(東史纂要)』를 개찬하여 완성하였다. 이 책은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우리나라 역사인데, 편년체와 기전체 역사를 절충한 독특한 서술방식이다. 77세(1616년) 되던 8월에 청송부사를 제수받아 10월에 부임하였으나 그 이듬해(1617년) 2월에 병으로 사임하고 3월 영주의 집에서 별세하였다. 광해군이 내린 제문에서 "도학은 퇴계를 존모하고, 학문은 남명을 으뜸으로 삼았다. [道慕退陶 學宗山海]"고 한 귀절에서 오운의 학문적 연원을 볼 수 있다.

최흥벽(崔興璧)의 발문에 의하면, 오운은 문장으로 세상에 알려져 평생의 저술이 아주 많았지

만, 가화(家禍)와 병화(兵禍)로 인해 대부분의 저술이 없어지고 본래 오운 자신이 원고 일부를 묶어 제목을 붙인 手藁 『율계난고(栗溪亂稿)』의 殘篇斷簡만 남아 있어 한스럽다고 하였다. 그의 7대손인 오명현(吳明顯)이 영주·예안을 돌아다니며 시문을 더 수집하여 자신이 만든 연보와 부록을 추가하여 초본을 만들었고, 수십 년이 지나 후손 오사중(吳司重, 7대손)이 1783년에 正言 이급(李級)에게 서문을 구하고, 영주의 여러 사우들과 수정을 하였는데, 6대손인 오후상(吳厚相)이 최흥벽과 함께 다시 오명현이 만든 초고를 참고하여 산정(刪定)하였다. 이를 오경흥(吳慶興, 8대손)이 1824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남명학교문헌시스템, 竹牖先生文集 해제). 오운을 통해 의령지역은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의 학문적 영향을 함께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 성관(姓貫)

문집은 그 집안에 학문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로 후손에 의해 편찬·간행된다.(송정숙 2004, 390) 경남 의령지역에서 간행된 문집 109종을 대상으로 문중에 학문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간행된 문집 저자의 성관(姓貫), 즉 성씨와 관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의령 지역 발행 문집 저자의 성관(姓貫) 분석

| 간행 종수 | 성관 종류 | 성관 | 저자명(종수) |
|----------|----------|------|---|
| 15 | 1 | 담양전씨 | 田祖生(2종), 田萬郊, 田基五, 田容斗, 田相武, 田珪鎭, 田溶奎, 田兌秀, 田溶倬, 田璣鎭, 田甲秀, 田恭鎭, 田溶起, 田驪-田禧鎭 |
| 12 | 1 | 고성이씨 | 李濟臣, 李魯, 李曼勝(2종), 李應璘, 李雲燾, 李正模, 李經, 李泰翔, 李泰植, 李泰夏, 李弘基 |
| 9 | 2 | 진양강씨 | 姜淑昇, 姜獻之, 姜思直, 姜進欽, 姜用欽, 姜士永, 姜瓚熙, 姜普桓, 姜信赫 |
| | | 탐진안씨 | 安起宗, 安德文, 安英老, 安鍾洛, 安鑽, 安孝濟, 安昌濟, 安植源, 安炳斑 |
| 7 | 1 | 진의이씨 | 李龍奎, 李根洙(2종), 李根玉, 李根萬, 李奉魯, 李種 |
| 6 | 1 | 경주이씨 | 李宗榮, 李尙靖, 李圭夏, 李績雨, 李秉灝, 李秉武 |
| 5 | 3 | 벽진이씨 | 李東柱, 李觀厚, 李敦厚, 李澈厚, 李典厚 |
| | | 안동권씨 | 權壽大, 權思學, 權鳳熙, 權參鉉, 權平鉉 |
| | | 의령남씨 | 南極人, 南廷瓚, 南廷瑀, 南昌熙, 南炳熙 |
| 3 | 6 | 달성서씨 | 徐命潤-徐命龍 형제, 徐基洪, 徐道鎭 |
| | | 순흥안씨 | 安國弼, 安鼎漢, 安鼎宅 |
| | | 안악이씨 | 李鉉五, 李鉉鼎(2종) |
| | | 창녕성씨 | 成一濬, 成台榮, 成榮台 |
| | | 창녕조씨 | 曹漢儒, 曹兢燮(2종) |
| | | 청송심씨 | 沈以汶, 沈尙知, 沈宜定 |
| 2 | 4 | 광주노씨 | 盧德奎, 盧正勳 |
| | | 김해허씨 | 許杓, 許容九 |
| | | 양천허씨 | 許穆, 許瓚 |
| | | 현풍곽씨 | 郭再祐(2종) |

| | | | |
|------|----|------|-----|
| 1 | 10 | 경주손씨 | 孫汝濟 |
| | | 경주취씨 | 崔汝琬 |
| | | 고창오씨 | 吳滂 |
| | | 광산김씨 | 金在佑 |
| | | 나주나씨 | 羅炳機 |
| | | 남양홍씨 | 洪在守 |
| | | 상주주씨 | 周時範 |
| | | 월성손씨 | 孫容秀 |
| | | 진주취씨 | 崔題林 |
| | | 합천이씨 | 李春煥 |
| 109종 | 29 | | |

경남 의령지역에서 문집을 간행한 저자 106인의 성관은 29개인데, 담양전씨(15종), 고성 이씨(12종), 진양강씨·탐진안씨(각 9종), 전의이씨(7종), 경주이씨(6종), 벽진이씨·안동 권씨·의령남씨(각 5종), 달성서씨·순홍안씨·안악이씨·창녕성씨·창녕조씨·청송심씨(각 3종), 광주노씨·김해허씨·양천허씨·현풍곽씨(각 2종)의 순이며, 1종을 간행한 성관도 경주손씨 등 10개나 된다.

의령지역에서 가장 많은 15종의 문집을 간행한 성관은 담양전씨로서 문집의 저자는 전조생(田祖生, 2종), 전만교(田萬郊), 전기오(田基五), 전용두(田容斗), 전상무(田相武), 전규진(田珪鎭), 전용규(田溶奎), 전태수(田兌秀), 전용탁(田溶倬), 전기진(田璣鎭), 전갑수(田甲秀), 전공진(田恭鎭), 전용기(田溶起), 전숙(田驥)-전희진(田禧鎭)부자이다. 의령군 용덕면 죽전리는 담양전씨가 20여대에 걸쳐 5백여년 동안 살아온 담양전씨 집성촌으로 이 마을에 정착한 담양전씨 최초의 인물은 ‘田氏 三隱(田祿生, 田貴生, 田祖生)’의 한 사람인 전조생의 6세손인 운암공(雲菴公) 전훈(田勳)이다. 그는 문과에 급제했으나 벼슬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살았으며 의령 남산의 수려한 경치에 반해 이곳에 터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마을 뒷산에 ‘증승록대부이조판서 운암전공지묘’가 자리하고 있다(중앙일보, 1982.5.29.).

의령에서 12종의 문집을 간행한 성관은 고성이씨이다. 고성이씨는 경남 고성을 관향으로 하는데, 고려 충렬왕 때 철성(鐵城)이라고도 불렀으므로 철성이씨라고도 한다. 문집의 저자는 이제신(李濟臣), 이로(李魯), 이만승(李曼勝, 2종), 이응린(李應璘), 이운희(李雲熹), 이정모(李正模), 이경(李經), 이태상(李泰翔), 이태식(李泰植), 이태하(李泰夏), 이흥기(李弘基)의 11인이다.

고성이씨의 의령 정착은 고려말 정용장군(精勇將軍) 이백(李伯, 1297-?, 호 隱庵)이 조정의 어지러움을 피해 의령 세간촌에 은거한 것에서 시작하므로 의령에 들어온 시기는 14세기 중반경으로 추측된다(김준형 2002, 168). 고성이씨 집성촌인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五方里)에는 송암(松巖) 이로의 『송암집』 책판을 보관하고 있는 장판각이 있다. 그 이웃 마을인

행정(杏亭)에도 역시 고성이씨가 사는데, 마을 어귀의 논두렁 밑에 자연석 표석이 있는데 ‘오방(五榜)’이라 새겨져 있다. 오방의 명확한 유래는 알려진 바 없지만 선조 때 다섯 형제가 급제하여 ‘오방(五榜)골’ 또는 ‘오방동’이라 했다는 설이 전한다.

고성이씨 문집의 저자 가운데 이제신과 이로는 남명 조식의 문인이고, 이정모는 성리학자로 심즉리설(心卽理說)을 주장한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의 제자이다. 이정모의 호는 자동(紫東)으로 이경윤(李景潤)의 후손으로 만성(晩醒) 박치복(朴致馥)의 문하에도 출입하였다. 문집 『자동집(紫東集)』이 있다. 그가 강학하던 자도재(紫陶齋)가 도당(陶唐) 마을에 있었는데, 뒤에 杏亭으로 옮겼다(허권수 2013, 315).

의령에서 9종의 문집을 간행한 성관은 진양강씨와 탐진안씨이다. 진양강씨 문집의 저자는 강숙승(姜淑昇), 강헌지(姜獻之), 강사직(姜思直), 강진흠(姜進欽), 강용흠(姜用欽), 강사영(姜士永), 강찬희(姜瓚熙), 강보환(姜普桓), 강신혁(姜信赫)의 9인이다. 이 가운데 강헌지(姜獻之)는 간송(澗松) 조임도(趙任道)의 제자로서 호가 퇴휴재(退休齋)이다. 생원시와 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은 이조정랑에 이르렀으며, 『어초문답(漁樵問答)』, 『격몽가훈(擊蒙家訓)』 등을 저술하였다.(허권수 2013, 303) 남인의 영수인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창설재 권두경(權斗經) 등과 교유한 것으로 미루어 학문적으로 퇴계학, 정치적으로 남인을 지향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찬희(姜瓚熙)는 한주 이진상의 제자인 자동 이정모의 제자로서 호는 창계(蒼溪)이다. 문집 『창계유고(蒼溪遺稿)』가 있다.

의령에서 9종의 문집을 간행한 탐진안씨 문집의 저자는 안기종(安起宗), 안덕문(安德文), 안영로(安英老), 안종락(安鍾洛), 안찬(安鑽), 안효제(安孝濟), 안창제(安昌濟), 안식원(安植源), 안병반(安炳斑)이다.

탐진안씨의 의령 정착을 살펴보면, 고려 왕조가 망하고 조선 왕조가 개창되면서 안복(安福)이 어지러움을 피해 장단(長湍)에서 영산(靈山)으로 은거하였고, 그 후 증손대인 안순민(安舜民) 때 다시 의령으로 들어왔으므로 대략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로 보인다(김준형 2002, 172). 의령의 탐진안씨는 정치적으로 남인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문집 저자들을 보면, 안덕문(1747-1811)은 입재 정종로 문인이고, 안효제(1850-1916)는 성재 허진, 서산 김홍락, 만구 이종기 문인이다(의령문화원 2008, 57).

‘경의(敬義)’를 기본으로 하는 남명의 사상과 기질은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지역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명은 의령의 사람들과도 일찍부터 교유하고 있었다. 『덕천사우연원록(德川師友淵源錄)』에 의하면 의령에서는 강응두(姜應斗), 강응규(姜應奎), 강우(姜瑀) 등이 남명과 교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강응두는 남명과 동갑으로 친밀하게 교유하였다. 이제신(李濟臣), 이로(李魯), 곽재우(郭再祐), 오운, 이종영(李宗榮) 등이 남명의 문인이다(의령문화원 2008, 55).

1623년 서인이 주도하는 인조반정이 일어남에 따라 대북정권이 무너지자 이에 참여하고 있던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 남명학파가 대대적으로 숙청되었다. 이후 남명학파는 상당히 침

체되었는데, 1728년(영조 4)에 일어난 무신란에 경상우도 안의를 중심으로 인근 고을 사족들이 참여하였다가 진압됨에 따라 남명학풍은 더욱 침체되었다(의령문화원 2008, 56).

그런 와중에서 의령지역 각 가문의 인물은 자신의 학문과 입지를 위해 자신이 속한 당파의 유명 인물에서 학맥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남인의 경우 한 때 의령과 인연을 맺었던 미수(眉叟) 허목(許穆), 성재(性齋) 허전(許傳) 등 기호 남인이나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 →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 → 한주(寒州) 이진상(李震相) 등으로 이어지는 영남 퇴계학과 호파(虎派) 학통의 인물에게 학맥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었다(의령문화원 2008, 56-57). 이외에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2), 척암(拓庵) 김도화(金道和, 1825-1912: 정재 문인),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 1827-1899: 정재 문인), 대계(大溪) 이승희(李承熙, 1847-1916: 이진상의 자), 면우(倓宇) 곽중석(郭鍾錫, 1846-1919), 긍菴(肯菴) 이돈우(李敦禹, 1807-1884), 사미헌(四未軒) 장복추(張福樞, 1815-1900), 만성(晩醒) 박치복(朴致福, 1824-1894), 만구(晩求) 이종기(李種杞, 1837-1902), 농산(農山) 장승택(張升澤, 1838-1916), 회당(晦堂) 장석영(張錫英, 1851-1929) 등 영남의 유명 인물에 맥을 대고 있었다(의령문화원 2008, 57).

4. 문집의 발행사항 분석

가. 발행연도

경남 의령지역에서 문집 간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의령지역 발행 문집 109종의 발행연도를 관종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듯이 17, 18세기에는 각 1종, 19세기에는 9종, 20세기에는 98종으로 의령에서의 문집 간행은 20세기에 거의 대부분인 90%가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18세기에 간행된 문집은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한 망우당 곽재우의 『망우당선생문집』의 초간본(1629), 중간본(1771)이 목판으로 간행된 것이 유일하고, 18세기 전반에는 의령에 사는 담양전씨 입향조 전훈의 6대조인 전조생의 『경은실기』가 1822년에, 임진왜란 때 학봉 김성일의 소모판으로 진주성을 수호하는 데 공을 세운 의병장 오운의 『죽유집』이 1824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표 6>에서 문집의 관종별 발행연도를 분석한 결과, 의령지역에서 문집을 발행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인쇄수단의 추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목판인쇄는 17세기부터 20세기 전반기인 1910년대까지 나타나는 반면에 목활자 인쇄는 1850년대에 처음 등장하여 1910년대부터는 주류가 목판인쇄에서 목활자인쇄로 이동하여 1950년대 전반기까지는 문집이 대부분 목활자 인쇄로 간행되었다. 1930년대에는 석판이나 신연활자로 인쇄된 문집이 등장하였다. 1960년대 들어 문집의 인쇄수단은 목활자에서 석판이나 신연활자로 완전히 교체되었으며, 1970년대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가 많아지다가 1980년대에 주춤하더니 1990년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6> 의령지역 간행 문집의 판종별 발행연도 분석

| 발행연도 | | 소계 | 종수(%) | 발행 종수 | | | | 비고 | |
|------|-----------|------------|------------|------------|-----------|-----|-------|-----------|----|
| | | | | 목판본 | 목활자본 | 석판본 | 신연활자본 | | |
| 17세기 | 1600-1649 | 1 (0.9%) | 1 (0.9%) | 1 | | | | 1629 | |
| | 1650-1699 | | - | | | | | | |
| 18세기 | 1700-1749 | 1 (0.9%) | - | | | | | 1771 | |
| | 1750-1799 | | 1 (0.9%) | 1 | | | | | |
| 19세기 | 1800-1849 | 2 (1.8%) | 2 (1.8%) | 2 | | | | 1822,1824 | |
| | 1850-1859 | 7 (6.4%) | 3 (2.8%) | 2 | 1 | | | | |
| | 1860-1869 | | 1 (0.9%) | 1 | | | | | |
| | 1870-1879 | | - | | | | | | |
| | 1880-1889 | | 1 (0.9%) | | 1 | | | | |
| | 1890-1899 | | 2 (1.8%) | | 2 | | | | |
| | | | | | | | | | |
| 20세기 | 20세기 전반 | 98 (89.9%) | 11 (10.1%) | 6 | 5 | | | | |
| | | | 1910-1919 | 10 (9.2%) | 1 | 9 | | | |
| | | | 1920-1929 | 7 (6.4%) | | 7 | | | |
| | | | 1930-1939 | 10 (9.2%) | | 8 | 1 | 1 | |
| | | | 1940-1949 | 8 (7.3%) | | 8 | | | |
| | 20세기 후반 | | 1950-1959 | 15 (13.8%) | | 10 | 2 | 3 | |
| | | | 1960-1969 | 15 (13.8%) | | 1 | 8 | 6 | |
| | | | 1970-1979 | 16 (14.7%) | | | 10 | 6 | |
| | | | 1980-1989 | 6 (5.5%) | | | 3 | 3 | |
| | | | 계 | 109 | 109(100%) | 14 | 52 | 24 | 19 |

나. 저자 사후 문집발행 소요기간

문집은 대개 저자 사후에 간행된다. 저자 사후 문집 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경남 의령지역에서 발행된 문집 109종을 대상으로 저자 사후 문집발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듯이, 의령지역에서 문집은 저자가 별세하는 다음해부터 사후 545년까지 발행되었다. 저자 사후 100년 이내에 78종(71.6%), 저자 사후 101년-200년 이내에 9종(8.3%), 저자 사후 201년-300년 이내에 8종(7.3%), 저자 사후 301년-400년·401년-500년 이내에 각2종이 발행되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저자 사후 10년 이내에 32종(29.4%), 저자 사후 11년-20년 이내에 17종(15.6%), 저자 사후 21년-30년 이내에 10종(9.2%)으로서 저자 사후 31년-40년 이내에 7종(6.4%), 저자 사후 41년-50년 이내에 4종(3.7%)로서 사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문집 간행이 대폭 줄어들음을 볼 수 있다.

<표 7> 저자 사후 문집발행 소요기간

| 저자 사후 소요기간 | | 종수 / % | | 기간(종수) | | |
|----------------|-------------|-----------|------------|---|--|---|
| 사후 100년 이내 | 사후 0-50년 | 사후 0-10년 | 78 (71.6%) | 69 (63.3%) | 31 (28.4%) | 1년(7종), 2년(5종), 4년(4종), 5년(1종), 6년(2종), 7년(2종), 8년(6종), 9년(3종), 10년(1종) |
| | | 사후 11-20년 | | | 17 (15.6%) | 11년(5종), 12년(1종), 13년(1종), 14년(1종), 15년(2종), 16년(3종), 17년(1종), 18년(1종), 19년(2종) |
| | | 사후 21-30년 | | | 10 (9.2%) | 24년(1종), 25년(2종), 26년(1종), 27년(4종), 29년(1종), 30년(1종) |
| | | 사후 31-40년 | | | 7 (6.4%) | 32년(2종), 33년(2종), 35년(1종), 37년(1종), 39년(1종) |
| | | 사후 41-50년 | | | 4 (3.7%) | 41년(1종), 43년(2종), 47년(1종) |
| | 사후 51-100년 | | 9(8.3%) | | 54년(1종), 55년(1종), 67년(1종), 71년(1종), 73년(1종), 88년(1종), 92년(2종), 95년(1종) | |
| 사후101년~200년 이내 | 사후 101-150년 | 10(9.2%) | 3(2.7%) | | 101년(1종), 123년(1종), 126년(1종) | |
| | 사후 151-200년 | | 7(6.4%) | 154(1종), 155년(1종), 163년(1종), 183년(1종), 192년(1종), 197년(2종) | | |
| 사후201년~300년 이내 | 사후 201-250년 | 8(7.3%) | 4(3.7%) | | 207년(1종), 219년(1종), 223년(1종), 225년(1종) | |
| | 사후 251-300년 | | 4(3.7%) | 254년(1종), 282년(1종), 291년(1종), 292년(1종) | | |
| 사후301년~400년 이내 | 사후 301-350년 | 2(1.8%) | 2(1.8%) | | 312년(1종), 325년(1종) | |
| | 사후 351-400년 | | - | - | | |
| 사후401년~500년 이내 | 사후 401-450년 | 2(1.8%) | 1(0.9%) | | 449년(1종) | |
| | 사후 451-500년 | | 1(0.9%) | 467년(1종) | | |
| 사후501년~600년 이내 | 사후 501-550년 | 1(0.9%) | 1(0.9%) | | 545년(1종) | |
| 미상 | | 8(7.3%) | | | | |
| 계 | | 109(100%) | | | | |

저자 사후 40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발행된 문집을 보면, 사후 449년만인 1909년에 전주이씨 이종(李種, ?-1460)의 『덕은감실기(德恩監實記)』가 목활자로 인출되었고, 전조생(田祖生, 1318-1355)의 『경은실기(耕隱實紀)』가 사후 467년만인 1822년과 사후 545년만인 1900년에 목판으로 인출되었다. 저자 사후 오랜 기간이 지나거나 전란 등으로 저자의 유문이 산일되어 유문이 적은 경우, 저자에 대한 기록을 수습하여 부록으로 편철한 후 '실기'라는 이름을 편찬·간행하였다.

다. 발행소

경남 의령지역에서 간행된 문집 109종 가운데 발행소가 명기된 문집 25종의 발행소를 『宜寧樓亭錄』과 『文化遺蹟分布地圖: 宜寧郡』 등에서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의령지역 문집의 발행소

| 구분 (종수) | 발행 종수 | 발행소 | | | | | | | |
|------------|------------|-------------|---------------------|---------------------|------|------------------------|------------------------------|-------------------|------|
| | | 발행소명 | 주소 | 용도/문중 | 연도 | 인쇄자 | 문집명(저자) / 주관 | 판종 | |
| 정자 (10) | 2 | 二宜亭 | 大義面 中村里 | 허목 추모/ 양천허씨 | 1905 | | 미수기언(眉叟記言, 허목) / 소와 허찬 주도 | 목판본 | |
| | | | | | 1933 | 姜信五 (의령) | 소와문집(素窩文集, 허찬) | 목활자본 | |
| | 1 | 洛峰亭 | 富林面 龜山里 | 탐진안씨 | 1939 | 安柄國 (의령) | 미동유고(帽東遺稿, 안종탁) | 목활자본 | |
| | 1 | 桂山亭 | 宮柳面 桂峴里 | 창녕성씨 | 1931 | 申應三 (의령) | 계와집(桂窩集, 성일준) | 목활자본 | |
| | 2 | 臨川亭 | 正谷面 五方里 杏亭 | 철성이씨 | 1852 | | 송암집(松巖集, 이로) | 목판본 | |
| | | | | | 1955 | | 수산집(壽山集, 이태식) | 신연활 자본 | |
| | 1 | 明石亭 | 富林面 新反里 西洞 | 안동권씨 | 1967 | | 각재문집(覺齋文集, 권삼현) | 석판본 | |
| | 1 | 石川亭 | 芝正面 杜谷里 | 전의이씨 | 1970 | | 석천유고(石川遺稿, 이봉로) | 신연 활자본 | |
| | 1 | 紫山亭 | 宮柳面 多峴里 | 담양전씨 | 1974 | | 자산유고(紫山遺稿, 전갑수) | 석판본 | |
| | 1 | 寒泉亭 | 大義面 杏亭里 | 철성이씨 | 1907 | | 도구선생실기(陶丘先生實記, 이제신) | 목판본 | |
| 재실 (7) | 1 | 瞻慕齋 | 龍德面 竹田里 上竹 | 담양전씨 | 1900 | | 경은실기(耕隱實紀, 중간, 전조생) | 목판본 | |
| | 1 | 樂山齋 | 柳谷面 馬場里 馬場 | 진주이씨 | 1909 | | 덕은감실기(德恩監實記, 이종) | 목활자본 | |
| | 1 | 高山齋 | 富林面 立山里 | 탐진안씨 | 1927 | | 수파문집(守坡文集, 안효제) | 목활자본 | |
| | 1 | 東華齋 | 富林面 新反里 萬德 | 안동권씨 | 1929 | | 석오문집(石梧文集, 권봉희) | 목활자본 | |
| | 1 | 謙受齋 | 正谷面 五方里 杏亭 | 철성이씨 | 1972 | | 겸수재유고(謙受齋遺稿, 이흥기) | 신연 활자본 | |
| | 1 | 昭岡齋 | 洛西面 來濟里 | 蒙軒遺室 중건 /벽진이씨 | 미상 | | 몽헌유고(蒙軒遺稿, 이동주) | 석판본 | |
| | 1 | 怡切堂 | 富林面 龜山里 | 탐진안씨 | 1955 | | 성암문집(惺菴文集, 안식원) | 목활자본 | |
| | 개인집 (6) | 1 | 柳谷面 新村里 234番地 | 柳谷面 新村里 234 | 담양전씨 | 1932 | | 명강집(鳴岡集, 전용두) | 목활자본 |
| | | 1 | 正谷面 五方里 杏亭 | 正谷面 五方里 杏亭 | 철성이씨 | 1941 | 權宇容 (산청) | 괴당선생문집(槐堂先生文集) | 목활자본 |
| | | 1 | 李元達家 | 正谷面 中橋里 716 | 창녕조씨 | 1966 | 李元達 (의령) | 양진당실기(養眞堂實記, 조한유) | 목활자본 |
| 1 | | 姜成熙家 | 龍德面 新村里 | 진양강씨 | 1975 | | 무성유고(無惺遺稿, 강사영) | 신연 활자본 | |
| 1 | | 金永輔家 | | 광산김씨 | 1985 | | 정려유고(井廬遺稿, 김재우) | 신연 활자본 | |
| 1 | | 姜源梅家 | 龍德面 井洞里 | 진양강씨 | 1986 | 삼합사인쇄소 (하연창, 진주) | 어화지미록(漁火趾美錄, 강사직) | 신연 활자본 | |
| 서원 | 1 | 泰巖書院 | 龍德面 竹田里 | 담양전씨 | 1822 | | 경은실기(耕隱實紀, 전조생) | 목판본 | |
| 精舍 | 1 | 龜山精舍 | 富林面 龜山里 | 탐진안씨 | 1938 | | 기암집(棄菴集, 안국필) | 목활자본 | |
| 인쇄소 | 1 | 宜寧合同 印刷所 | | 달성서씨 | 1974 | | 치재유고(恥齋遺稿, 서도진) | 신연활 자본 | |
| 계 | 26종 | | | | | | | | |

의령지역 간행 문집 109종 가운데 발행소가 명기된 26종의 간행소는 누정(10종), 재실(7종), 개인집(6종), 서원(1종), 정사(1종), 인쇄소(1종)의 순이다. 발행소가 명기된 26종의 문집 가운데 누정이나 재실에서 17종(65%)이나 간행되었고, 서원에서는 1종만 간행된 사실은 의령에서 문집 간행이 제자를 중심으로 한 학문공동체가 아니라 문중의 후손을 중심으로 한 혈연공동체의 주요 사업이었음을 의미한다.

문집을 간행한 누정은 이의정(二宜亭), 낙봉정(洛峰亭), 계산정(桂山亭), 임천정(臨川亭), 명석정(明石亭), 석천정(石川亭), 자산정(紫山亭), 한천정(寒泉亭)의 8개소이다.

이의정(二宜亭)은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정자로서 의령군 대의면 중촌리 자굴산 서편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는 1825년 의령군 대의면 행정리에 미수를 추모하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미연서원(岬淵書院)이 건립되었으나, 1871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때 없어지고, 영정 및 연보 판각은 경기도 연천(漣川)에 있는 은거당으로 보내졌다. 은거당은 미수의 노년 삶을 위해 숙종이 하사했던 집이다. 그 후 1901년에 소와(素窩) 허찬(許燾, 1850-1932)의 주장으로 지방 유림이 힘을 모아 현 위치인 대의면 중촌리에 이의정을 건립하게 되었다. ‘이의(二宜)’의 뜻은 산이 좋고 물이 좋아 산수 두 가지가 다 합당하다는 의미이다. 이곳에서 소와 허찬(1850-1932)의 『소와문집』이 1933년에 목활자로 인쇄되었다.

허찬의 호는 소와(素窩), 본관은 양천(陽川)으로, 1850년(철종 1) 의령군 대의면 모의리에서 태어났다(최석기 2012, 74). 허찬은 구한말 의령을 대표하는 유학자로서 성재(性齋) 허전(許傳)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그는 유교의 도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면서 도를 보위하기 위해 강학을 하고, 선현의 서책을 간행하고, 서당·서원을 중건하는 등의 일을 주선하였다. 소와는 남인계 학자로서 퇴계학파에 속한 인물로서 주자·퇴계 등 전통적인 설을 그대로 추종하였다(최석기 2012, 71-72).

의령군 부림면 손오리에 있는 낙봉정(洛峰亭)은 안종락이 거주하며 강학하던 장소로 이곳에서 안종락(安鍾洛, 1826-1892)의 문집인 『미동유고(岬東遺稿)』를 1939년에 목활자로 인쇄하였다. 의령군 궁류면 계현리에 있는 계산정(桂山亭)에서 창녕성씨 성일준의 『계와집(桂窩集)』을 1931년에 의령 류곡면 신촌리에 거주하는 인쇄자, 즉 각수 신응삼(申應三)이 목활자로 인쇄하였다.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의 임천정(臨川亭)은 정곡면 오방리 출신으로 한말 의령의 대표적 선비이자 독립운동가인 고성이씨 수산(壽山) 이태식(李泰植, 1875-1952)의 처소 겸 서당으로 사용되었다. 이태식은 이곳에서 1930년 의령의 『의춘지(宜春志)』 3책을 간행했으며, 1905년에는 대원사에 주자어류 간행 작업에도 참여하였다.³⁾ 이태식의 사후인 1955년에는 이곳에서 그의 문집인 『수산집』이 신연활자로 간행되었다.

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이야기, 2019.5.28. <<https://blog.naver.com/uiryonginfo/221548741423>>

의령군 가수면 명석골[明石谷]의 명석정(明石亭)은 각재(覺齋) 권삼현(權參鉉, 1879-1965)이 서당을 열어서 많은 제자를 배출한 곳이다. 권삼현의 『각재문집』 9권5책은 1967년 족제(族弟) 용현(龍鉉), 조카 영순(永純), 문인 등이 명석정에서 편찬하여 석판 인쇄한 것이다. 명석정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서 148종 419책과 고문서 33종 489점은 권정희(權珽熙, 1825-1899)와 권삼현 당대에 형성된 자료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0, 3). 저자 권삼현은 송병선(宋秉璿)의 문인으로 송병순(宋秉琣)·최익현(崔益鉉)·전우(田愚) 등과도 교류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스승 송병선이 자결했는데, 권삼현은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동문들과 스승의 문집을 편집·간행하였다. 1909년 송병순이 만동묘(萬東廟) 복원을 주장하자 그를 도와 복원사업에 앞장섰고, 또 1910년 송병순의 명을 받들어 대축(大祝)으로 황묘(皇廟)를 제향하였다. 1912년에 송병순도 순국하자 그는 초계(草溪) 봉산(鵬山)에 은거하여 강학하였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천인성명(天人性命)·화이존양(華夷尊攘)의 학문을 전수받아 기정진(奇正鎭)학과와의 논쟁거리였던 이기설(理氣說)에 있어서 이이(李珣)의 학설을 좇아 주기(主氣)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제자로는 권용현(權龍鉉)·유상대(柳相大) 등이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의령군 지정면(芝正面) 두곡(杜谷)에 있는 석천정(石川亭)은 전의이씨 이봉로(李奉魯, 1884-1962)를 추모하여 건립한 정자이다(의령군, 1985: 392). 이곳에서 이봉로의 『석천유고』를 1970년에 신연활자로 인출하였다.

의령군 대의면 행정리의 한천정(寒泉亭)은 조금 위에 있는 ‘찬샘’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한다. 남명 조식의 문인인 철성이씨 도구(陶丘) 이제신(李濟臣, 1510-1582)의 묘가 의령 자굴산 아래에 있는데, 그 밑에 한천정을 세우고 후손 이태식(李泰植)이 1901년에 이만도(李晩燾)에게 기문을 청하였다. 이곳에서 이태식이 이제신의 유문1권과 부록 문자 2권, 합 3권1책으로 만들어 사후 324년인 1907년에 『도구선생실기(陶丘先生實記)』를 후손과 외손인 담양전씨와 원근의 사림이 힘을 모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丁未六月日開刊 寒泉亭藏板”이라는 간기와 이승희(李承熙, 1847-1916)의 발문이 이를 말해준다(남명학고문헌시스템, 陶丘實記 해제 참고).

문집을 간행한 재실은 침모재(瞻慕齋), 요산재(樂山齋), 고산재(高山齋), 겸수재(謙受齋), 소강재(昭岡齋), 이절당(怡切堂) 등이다.

의령군 용덕면(龍德面) 죽전리(竹田里) 상죽(上竹)에 위치한 담양전씨 재실인 침모재(瞻慕齋)(의령문화원 1997, 313)에서 담양전씨 의령 입향조인 전조생의 『경은실기』를 목판으로 1900년에 중간하였다.

의령군 유곡면(柳谷面) 마장리(馬場里) 마장(馬場)의 요산재(樂山齋)에서는 ‘己酉(1909) 孟秋月下澣宜春樂山齋活印’이라는 인기가 말해주듯이, 이곳에서 이종(李種)의 『덕은감실기(德恩監實記)』 2권1책이 1909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안덕문(安德文, 1747-1811)은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입산마을에 세거한 탐진안씨로 호

는 의암(宜庵)이다. 부친의 명으로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어려차례 낙방하다 41세의 부친상 이후 과거를 포기한 뒤 성현이 되는 공부를 지향하였다. 그는 교육기관인 흥학당(興學堂)의 창건을 주도하고 문중서당인 고산재(高山齋)를 중수하여 고을의 학문을 일으키고자 하였다(의령문화원 최석기, 2018). ‘丁卯(1927)春三月高山齋活印’이라는 인기가 말해 주듯이, 고산재에서 안효제의 『수과문집(守坡文集)』이 목활자로 1927년에 간행되었다.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행정의 겸수재(謙受齋)는 고성이씨 겸수재 이홍기(李弘基, 1891-1940)가 공부하던 곳이다. 이곳에서 이홍기의 『겸수재유고(謙受齋遺稿)』 2권1책이 1972년에 신연활자로 발행되었다.

의령군 낙서면(洛西面) 내제리(來濟里)에 위치한 소강재(昭岡齋)는 ‘몽헌유실(蒙軒遺室)’이라는 현판이 지금도 걸려 있는 곳으로 벽진이씨 몽헌 이동주가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곳이다(의령문화원 1997, 553-555). 이곳에서 몽헌 이동주의 『몽헌유고』가 석판으로 간행되었다.

의령군 부림면(富林面) 구산리(龜山里)의 이절당(怡切堂)은 이만구의 수제자인 안식원이 세웠다(의령문화원 1997, 665-666). 이곳에서 안식원의 『성암문집』이 1955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고성이씨 집성촌인 정곡면 오방리 행정(杏亭)에서 고성이씨 송암 이로의 동생인 백암 이지(李之)의 아들인 괴당 이만승(李曼勝, 1590-1659)의 『괴당선생문집(槐堂先生文集)』이 1851년에는 목판으로, 1941년에는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에 거주하는 인쇄자, 즉 각수 권우용(權宇容)이 목활자로 중간하였다.

용덕면 죽전리의 태암서원은 문원공 전조생과 그의 손자인 매정 전자수를 향사하기 위해 1789년(정조 13)에 유림과 담양전씨 후손들이 건립하였다. 이곳에서 1822년 전조생의 실기인 『경은선생실기』를 발행하였다. 이 태암서원은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었다가 그 뒤 후손들에 의해 다시 중건되었다.

의령군 어화동의 『어화지미록』 재판은 진주의 삼협사인쇄소에서 2004년에 신연활자로 동장본 문집을 인쇄하였다.

의령지역에서 간행된 문집 109종의 간행소를 판종별로 분석하면, 문집은 판종에 구분 없이 누정과 재실에서 주로 간행되었는데, 이는 의령에서 문집 간행은 판종에 구분없이 주로 선조의 학문과 행적을 선양하기 위한 문중, 즉 혈연공동체의 사업이었음을 의미한다. 학문공동체인 서원에서는 태암서원에서 1822년 전조생의 『경은실기』가 목판으로 간행된 것이 유일하다.

IV. 맺음말

경남 의령지역 간행 문집 109종의 판종, 유형, 저자사항, 간행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판종은 목활자본(52종, 47.7%), 석판본(25종, 22.9%), 신연활자본(18종, 16.5%), 목판본(14종, 12.8%)의 순으로 목활자본이 가장 많고 목판본이 가장 적었다. 이는 의령에 남명학통이나 퇴계 학통을 잇는 큰 학자가 배출되지 않아 문집 간행이 학문공동체인 서원출판이 저조하고 대부분 혈연공동체인 문중 사업이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 유형은 문집(53종, 48.6%), 유집(47종, 43.1%), 실기(9종, 8.3%)의 순이다.

3)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는 1318년부터 1902년까지 584년의 간극이 있다. 가장 앞선 1318년생은 『경은실기』의 저자인 전조생이고, 1902년생은 『회동유고』의 저자인 전용기(1902-1978)이다. 전체 저자 104명 가운데 19세기 전기 출생자가 16명(15.4%), 19세기 후기 출생자가 54명(51.9%)로서 19세기에는 전체의 67.3%에 해당하는 70명이 출생하였다. 문집의 저자도 70%에 가까운 인물이 19세기 출생하였는데, 문집은 주로 사후에 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주로 간행되었으므로 석판본, 신연활자본 간행도 40% 가량을 차지한다.

4) 109종 문집 저자의 성관은 29개로서 담양전씨(15종) > 고성이씨(12종) > 진양강씨·탐진안씨(각9종)의 순이다.

5) 의령에서 문집의 간행년도를 보면, 16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70년간 간행되었고, 1820년대까지는 문집이 목판으로만 간행되었고, 1850년대에 목활자본 문집이 처음 나타나며, 1930년대에 석판본, 신연활자본 문집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시대 추이에 따른 문집 인쇄수단의 변천도 파악된다.

6) 의령에서 문집은 저자 사후 문집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저자가 별세하는 당해년부터 사후 545년까지 간행되었고, 저자 사후 50년 이내에 63.3%인 69종이 간행되었다.

7) 문집의 간행소는 판종에 구분없이 조상의 제향공간인 누정과 재실이 가장 많았다. 이는 문집간행이 선조의 학문과 행적을 선양하고자 하는 혈연공동체의 사업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학문공동체인 서원 출판에 비해 배포범위가 문중으로 제한되므로 오랜 기간 책판을 보관하며 거의 무제한 복제가 가능한 목판인쇄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인출이 가능한 목활자 인쇄를 선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는 경남 의령지역 문집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문집으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李種. 『德思監實記』. 목활자본.

- 구산우 외, 2008. 『경남의 서원』. 서울: 선인.
- 김동욱, 2004. 고려 사대부 작가론.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남권희 외, 2013.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서울: 글항아리.
- 망우당기념사업회, 1988. 『망우당과재우연구(1)』. 대구: 신흥인쇄소.
- 密陽誌編纂委員會 編, 1987. 『密陽誌』. 밀양: 밀양문화원.
- 박용규, 배석만, 이준환, 2018. 『남저 이우식의 민족독립운동』. 의령: 의령문화원.
- 백산안희제선생순국70주년추모위원회, 2013. 『백산 안희제의 생애와 민족운동』. 서울: 도서출판 선인.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1998. 『한국의 인쇄문화』.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1988. 『영남문집해제』.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의령군 문화공보실, 1985. 『내고장 전통(의령군)』. 의령: 경남인쇄공업협동조합.
- 의령군지 편찬위원회, 2003. 『의령군지(상권, 하권)』. 의령: 협진인쇄사.
- 의령군청, 2017. 『의령관광가이드북』. 의령: 의령군청.
- 의령문화원, 1997. 『宜寧樓亭錄』. 의령: 의령문화원.
- 의령문화원, 2008. 『입산마을의 역사와 문화』. 서울: 선인.
- 의령문화원, 2015. 『의령의 금석문화』. 진주: 도서출판 화인.
- 의령박물관, 2003. 『의령박물관도록』. 의령: 강산애드.
- 이상필 외, 2018. 『의령의 인물과 학문 4』. 의령: 의령문화원.
- 장인진, 2011. 『영남 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양상』.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천혜봉, 2010.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 최석기 외, 2016. 『19세기 경상우도 학자들(상·중·하)』. 서울: 보고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0. 『宜寧 安東權氏 明石亭 古文獻』.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 허권수 외, 2012. 『의령의 인물과 학문』. 진주: 도서출판 화인.

<연구 논문>

- 김승룡, 2018. 槐堂 李曼勝의 삶과 시세계에 대하여.
- 김준형, 2002. 의령지역 새로운 성씨의 정착. 『慶南文化研究』, 23: 159-196.
- 송정숙, 2004. 경남의 목활자본 연구. 『書誌學研究』, 29: 381-404.
- 송정숙, 2009. 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출판활동. 『書誌學研究』, 42: 267-298.
- 송정숙, 2016. 경남 산청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書誌學研究』, 68: 201-245.
- 송정숙, 2018. 경남 합천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書誌學研究』, 73: 205-246.
- 이상필, 2018. 芝峯 李宗榮의 生涯와 雞 黍約會 活動의 意義. 『동양한문학연구』, 49: 81-108.
- 최석기, 2018. 宜庵 安德文의 學問精神과 處世方式. 『동양한문학연구』, 49: 49-80.
- 최석기, 2012. 소와 허찬의 학문과 문학. 『남명학연구』, 33: 71-109.
- 최재호, 2011. 송암(松巖) 『용사일기(龍蛇日記)』의 문학적 특성 논의. 『퇴계학과유교문화』, 48:

131-163.

허권수. 2003. 의령의 학문적 전통과 특징. 『淵民學志』, 20: 281-335.

황위주, 김대현, 김진균, 이상필, 이향배. 2013. 일제강점기 전통지식인의 문집 간행 양상과 그 특성. 『민족문화』, 41: 203-296.

<전자정보원>

경상대학교 도서관 문천각 남명학고문헌시스템 홈페이지. <<http://nmh.gnu.ac.kr>>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 <<http://kostma.korea.ac.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koreanhistory.or.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의령군청 홈페이지. <www.uiryeong.go.kr>

의령문화원 홈페이지. <<http://uiryeong.kccf.or.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 <<http://www.itkc.or.kr/itkc/Index.jsp>>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홈페이지. <<http://www.ugyo.net>>

한국서원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seowonstay.com/>>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nl.go.kr/korcis>>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people.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 홈페이지. <<http://waks.aks.ac.kr>>

<신문>

“담양 전씨 집성촌·경남 의령군 용덕면 죽전리” 1982. 『중앙일보』. 5월 29일

“[한국의 혼 樓亭.34] 미수 허목의 의령 대의면 ‘이의정’” 2007. 『영남일보』. 2월 27일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ooks>

Chang, Injin. 2011. *Publication and Bibliographical Aspects of Literary Collection of Yeungnam*. Daegu: Keimyung University Press.

Choi, Seokki. et al. 2016. *Scholars in Gyoungsang-uhdo(慶尙右道) during the 19th Century(vol.1-3)*. Seoul: Bogosabooks.

- Chon, Hye-bong. 2010. *Bibliography of Korea*. Seoul: Minumsa.
- Center for Korean Studies(Pusan National University). 1988. *Printing Culture of Korea*. Busan: PUSAN NATIONAL UNIVERSITY PRESS.
- Compilation committee of Miryang's County Report. 1987. *Miryang's County Report*. Miryang: Miryang Culture Center.
- Compilation committee of Uiryeong's County Report. 2003. *Uiryeong's County Report*. Uiryeong: Hyupjin Press.
- Heo, Kweon Soo. et al. 2012. *Historical Figure and Academic Tradition of Uiryeong*. Jinju: Fine Press.
-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Studies Yeungnam University. 1988.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of Yeungnam Literary Collections*. Daegu: Yeungnam University Press.
- Jangseogak Archives(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0. Uiryeong Andong Kwon (權) Family's Historial Documents of myungsukjung(明石亭).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im, Dong Uk. 2004. *The Literature of Sadaebu of Koryo Dynasty*. Seoul: Pagijong Press.
- Koo, Sanwoo. et al. 2008. *Seowons in Gyeongnam Province*. Seoul: Sunin.
- Lee, Sangpil. et al. 2018. *Historical Figure and Academic Tradition of Uiryeong*. Uiryeong: Uiryeong Center.
- Memorial Association of Mangwoodang. 1988. *A Study of the Mangwoodang Guak, Jaewoo(1)*. Daegu: Shinhung Press.
- Memorial Committee of the 70th Anniversary of Ahn Hee-Je's Death. 2013. *Baeksan Ahn Hee-jae's Life History and National Movements*. Seoul: Sunin.
- Nam kwon-heui. et al. 2013. *Read the Knowledge Culture of Joseon at the Intervals of the Woodblocks*. Seoul: Geulhangari.
- Park, Yongkyu. and Bae, Sukman. and Yi, Jun-hwan. 2018.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by Lee, woosik*. Uiryeong Culture Center.
- Uiryeong County Office. 1985. *The Traditions of My Hometown(Uiryeong Province)*. Uiryeong: Gyeongnam Printing Industry Cooperative.
- Uiryeong Culture Center. 1997. *Writings about Pavilion(樓亭) of Uiryeong*. Uiryeong: Uiryeong Culture Center.
- Uiryeong Culture Center. 2008. *History and Culture of Ipsan Village*. Seoul: Sunin.
- Uiryeong Culture Center. 2015. *Epigraph Culture of Uiryeong*. Jinju: Fine Press

Uiryong County Office. 2017. *Tourist Guidebook of Uiryong*. Uiryong: Uiryong County Office.

Uiryong Museum. 2003. *Catalogue of Uiryong Museum*. Uiryong: Kangsanad.

<Research Papers>

Choi, Jae Ho. 2011. "A Discussion on Literary Characteristics of Songam's Diary Titled "Yongsa Ilgi". *Toegye Studies and Korean Culture*, 48: 131-163.

Choi, Seokki. 2018. "Uiam Ahn Deok-Mun s Academic Spirit and Conduct of Life Approach." *Dongyang studies in Korean Classics*, 49: 49-80.

Choi, Seokki. 2012. "The Study and Literature of Sowa Heo Chan." *The Nammyonghak Study*, 33: 71-109.

Heo, Kweon-Soo. 2003. General Articles : The Academic Traditions and Traits of Uiryong. *THE YON MIN HAK JI*, 20: 281-335.

Hwang, Wee-Zoo. and Dae-hyeon, Kim. and Jin-kyun Kim. and Sang-pil Lee. and Hyang-bae, Lee. 2013. "The reality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traditional intellectuals collections of works in the Colonial era." *MINJOK MUNHWA*, 41: 203-296.

Kim, Jun Hyong. 2002. "The Settlement of New Family names in Uiryong Province" *Journal of Studies of Gyeongnam Culture*, 23: 159-196.

Kim, Seung Ryong. 2018. "A Study on 槐堂 李曼勝 s Life and Poetic world." *Dongyang studies in Korean Classics*, 49(1), 137-164.

Song, Jung-Sook. 2004. "A Study on the Wooden Movable Type Printing Books in Gyeongsangnam-do."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29: 381-404.

Song, Jung-Sook. 2009. "Printing and Publishing of Hunryondogam in the 17th Centur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42: 267-298.

Song, Jung-Sook. 2016.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Sancheong-gun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8: 201-245.

Song, Jung-Sook. 2018.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Hapcheon area, Gyeongsangnam-do Province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3: 205-246.

<Internet Information>

Center for Overseas Resources on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Home Page.

<<http://kostma.korea.ac.k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Digital Library of Nammyong Study Home Page. <<http://nmh.gnu.ac.kr>>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Home Page.

<<http://www.itkc.or.kr/itkc/Index.jsp>>

Korean Historical Information Integration System Home Page.

<<http://www.koreanhistory.or.kr>>

National Library of Korea. KORCIS Home Page. <<https://www.nl.go.kr/korc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Home Page.

<<http://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Home Page.

<<http://encykorea.aks.ac.k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eneral information on Korean historical figures TOTAL DATABASE Home Page. <<http://people.aks.ac.k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Promotion Performance Portal Home Page. <<http://waks.aks.ac.kr>>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Ugyonet Home Page. <<http://www.ugyo.net>>

Uiryeong Culture Center Home Page. <<http://uiryeong.kccf.or.kr>>

Uiryeong-gun District Office Home Page. <www.uiryeong.go.kr>